



<span style="color: red;">↑</span> 코스피	3258.63 (+6.50)	<span style="color: blue;">↓</span> 코스닥	997.37 (-0.04)
<span style="color: red;">↑</span> 금리 (미국 3년)	1.289 (+0.002)	<span style="color: red;">↑</span> 환율 (원/달러)	1117.00 (+0.30) (15일)



[경제종합]  
택배 파업 장기화  
유통가 비상  
03

# 이베이發 이커머스 지각변동 쉽 없는 M&A로 선두 노린다

이커머스 3위 '이베이' 인수전  
오늘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예상  
'4조 베팅' 신세계 인수 가능성  
성사 땀 단숨에 업계 2위로 우뚝  
카카오, 카카오커머스 흡수합병  
선물하기 등 차별화로 몸집 키워



올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M&A(인수·합병)와 이에 따른 합종연횡의 영향으로 이커머스 시장 지형도가 새로 그려질 예정이다. 선두권에 안착한 기업들만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 전망이다.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는 16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로 알려진 미국 이베이 본사의 연례 이사회 직후 이베이코리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된다.

앞서 7일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는 유통업계의 전통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가 최종 후보로 올랐다. 롯데는 단

독으로, 신세계는 네이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가 약 4조원의 인수가격을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3조원 중반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전에서는 가격이 승패를 결정짓는 큰 요인이기 때문에 신세계가 이베이코리아를 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커머스 시장 거래액은 네이버쇼핑(28조원), 쿠팡(22조원), 이베이코리아(20조원)순으로 많다. 롯데온(ON)은 7조6000억원, SSG닷컴

은 3조9000억원에 그치는 수준이다. 신세계가 이베이코리아를 품으면 단숨에 업계 2위로 올라설 수 있다. 여기에 오프라인 경쟁력까지 합쳐지면 그야말로 유통 공룡으로 우뚝 설 수 있다.

문제는 이베이 본사에서 기대했던 금액과는 거리가 있어 무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베이는 이베이코리아의 몸값을 5조~6조원으로 바라봤다.

카카오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문 회사인 카카오커머스를 다시 품는다.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커머스를 합병하기로 하고 오는 22일 이사회를 개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3분기 안에 카카오가 카카오커머스를 100% 흡수 합병할 전망이다. 2018년 12월 카카오에서 분사시킨 카카오커머스를 다시 품는 이유는 하나다. 카카오와 이커머스 사업을 연결시켜 규모감있게 사업을 키우려는 것.

카카오는 카카오커머스의 '선물하기' '톡스토어' '카카오쇼핑 라이브' 기능을 강화하며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를 공략할 계획이다. (4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코스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1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50포인트(0.20%) 오른 3258.63에 마감하며 이틀 연속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4포인트(0.00%) 내린 997.37,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3원 오른 1117.0원에 마감했다. /뉴스시스

# '수도권 공략' 건설사 5곳 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

수도권 리모델링 사업 집중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건설사 5곳이 올 상반기에만 도시정비사업에서 각각 1조원이 넘는 수주액을 달성했다. 주요 건설사들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집중한 결과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해외사업 축소로 어려움을 겪자 정비사업 수주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2280억원)을 시작으로 ▲마포구 합정동 447 일원 가로주택사업(504억원) ▲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사업(1906억원) ▲대구 신암10구역 재건축사업(1813억원) ▲용산구 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731억원) ▲의정부시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1440억원) 등 꾸준히 수주를 늘렸다. 이달 22일에는 전주시 하가구역 재개발사업(4246억)을 따내며 누적수주액이 1조2919억원을 기록했다. (3면에 계속)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4501억원) ▲노원구 상계2구역(2865억원) ▲경기 남양주시 진주아파트 재건축(1024억원) ▲경남 창원시 신원3구역(1881억원)을 수주하면서 이달까지 단일 수주액 1조271억원을 달성했다. 리모델링 공동 컨소시엄 수주액을 포함하면 총 수주액은 1조2012억원이다.

GS건설도 이달 누적 수주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GS건설은 지난 3월 대구 서문지구 재개발(2196억원)을 시작으로 ▲창원시 신원1구역 재건축(5554억원) ▲서울 문정 건영아파트 리모델링(2207억원) ▲잠실현대아파트 리모델링(933억원) 공사까지 4건을 수주하며 총 수주액이 1조890억원을 넘어섰다.

DL이앤씨는 리모델링에서만 1조원을 달성했다. DL이앤씨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산본 율곡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총 공사비는 4950억원(DL이앤씨 입찰가 기준) 규모다. (3면에 계속)

/정연우 기자 ywj964@

# "50인 미만 中企 주52시간제, 유예 없다"

정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  
인력난 영세 사업장 타격 클 듯



5개 경제단체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52시간 근무제는 별도 계도기간 없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단체들의 주52시간제 1년 이상 계도기간 요구에 정부는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보름이 채 남지 않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은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후유증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려면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고, 이미 계도 기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또 다시 유예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지만 돌연 16일로 연기했다. 다음 달 5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여·야당

과 협의할 내용이 남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전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가 주52시간제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브리핑을 미룬 것이어서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과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정치권에 주52시간제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주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규모·업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주52시간제 도입 후 예견치 못했던 '코로나19'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영·인력난에 허덕이는 영세 사업장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타격을 클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뿌리·조선업, 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납기일에 맞춰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기업에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2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15일 코로나19 확진자 이틀 연속 300명 대... 2차 접종 326만명  
▲ 경찰, 광주시청·동구청 압수수색... 붕괴 참사 수사 /사진 뉴스시스

▲ "일본, 한국내 재산 공개하라"... 위안부 피해자들 승소  
▲ 이준석 "부동산 전수조사 檢에 맡겨"... 김기현 "잘 몰라"



▲ 김 총리 "남북, 코로나 협력-이산가족 화상 상봉부터 하자" /사진 뉴스시스  
▲ 정은경 '타이레놀' 발언에 유통량 60% ↑... 의약시장 '휘청'

# 상반기 백신 1차접종 목표 1300만명 돌파... 집단면역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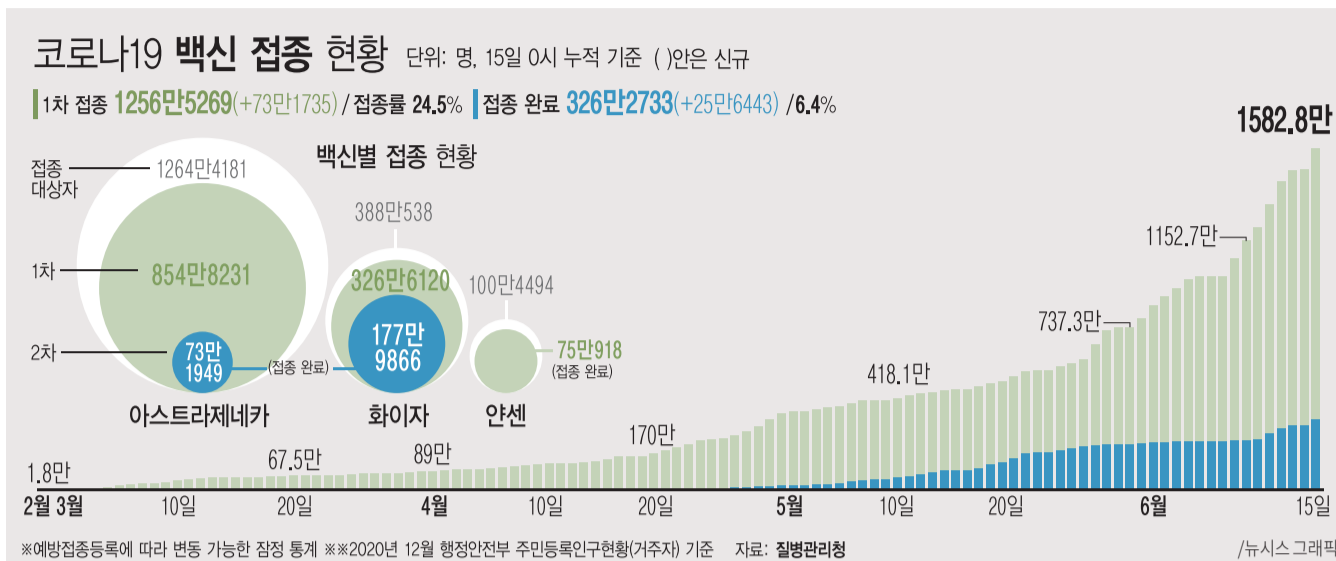
1차접종 완료자 인구 25.3% 해당  
2월26일 첫 접종 이후 109일 만  
당초 목표보다 보름이나 앞당겨

접종 완료자 326만명, 인구의 6.4%  
완료자, 야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접종률 90% 고령층, 확진자 하락세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가 보름 가량 앞당겨 달성됐다. 정부는 상반기 1차 접종 목표를 1300만명 이상, 최대 1400만명으로 잡은 바 있다. 이미 접종을 마친 연령대의 면역 형성도 가시화되면서, 연내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 ◆상반기 접종 목표 앞당겼다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오후 2시30분 기준으로 1차 접종자가 누적 13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 25.3%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된 지 109일만이며, 당초 목표보다 보름 빠르다.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완료자는 전 인구의 6.4%인 326만2733  
명으로 집계됐다.

1, 2차를 맞아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67.6%(접종 완료율 5.8%)가 1차 접종을 마쳤고, 모두 접종을 마친 사람은 비율은 5.8%다. 화이자 역시 1차 84.2%, 완료자는 45.9%다. 1회 접종으로 면역 형성이 가능한 안센 백신은 대

상자의 74.8%가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 접종자는 7월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방어력이 형성되면 7월부터는 방역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 ◆'면역효과' 가시화 기대도 커져

이미 접종을 마친 연령대의 면역 형

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 둘째주(6~12일) 7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15.8명인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난 2월26일 전 연령대에서 예방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75세 이상 고령

층의 경우, 현재 전체 90%가 예방접종을 마쳤다. 75세 이상 연령층은 4월 셋째 주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7.9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5월 첫째 주 5.5명, 5월 셋째 주 4.1명, 6월 첫째 주 3.3명으로 가파른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접종 수요가 높아지고, 전체 확진자도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내 집단면역 형성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확진자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75세 이하 연령대에서도 예방접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코로나19 전체 발생 규모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17일에는 3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3분기 접종 우선순위와 대상자별 접종하게 될 백신 종류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oul.co.kr

## IPO 공모주 청약 중복배정 금지... 무분별 계좌개설 제한

### 금융위,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크라우드펀딩 기업 발행액도 확대

앞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 배정이 금지된다.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청약 외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의 대기시간 또한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IPO공모주에 대한 일반 청약자의 중복배정이 제한된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청약한 투자자에게 중복 배정을 금지해야 한다.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했다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한다. 예컨대 투

자자A가 동일한 공모주에 대해 B증권사에 청약한 후 C증권사에도 청약했다면, 공모주 배정은 B증권사에서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 권리도 단절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 IPO 및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의무적으로 배정했다.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 20% 미만으로 배정받는다라는 의사를 서

면으로 표시하면 미달분을 일반청약자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주식+채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를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단 채권의 경우 연 15억원을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게 했다.

연초에 15억원을 발행하고 상반기에 5억원을 상환했다면 하반기에 5억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한다.

자법인 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손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하며,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자 자기자본의 40%, 개별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관련 내용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온·오프라인 창업**

↓ **창업비용 99만원**

**200여개 흥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물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핫터그룹

(주)핫터라이프 T. 070-7204-4515

## 뿌리·조선업체 44% “아직 준비 안돼”

» 1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서 계속

최근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곳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4%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다. 기업 중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밝혀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50인 이상 기업에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시행 후 300인 이상 기업에 6개월간, 50~299인 사업장에 1년간 계도기간을 줬다. 당시에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속을 완화하고, 법 위반 시정기간을 늘려줬다.

고용부는 그동안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며 단속보다 계도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다시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5월에도 뿌리·조선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설명회를 열어 유연근로제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16일 열린 고용부 브리핑에는 주52시간제 관련 보완책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가장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됐다.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업무량 폭증, 돌발 상황 등이 생겼을 때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 기업 대응책 중 하나다.

업체는 추가 인력 채용 시 비용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 임금 감소분 보전, 특별연장근로제의 '신고제'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쌓여가는 택배 상자... 택배 파업 장기화에 유통가 '비상'

택배파업 일주일째 이어가  
분류인력 투입 시점 놓고 이견  
오픈마켓, 배송지연에 골머리  
기약도 대안도 없어 업계 한숨

택배노동조합의 파업 불똥이 유통업  
계까지 퍼지는 모습이다.

택배 파업이 일주일째 지속되면서 현  
장 인력이 줄어들어 배송 지연이 이어  
지자 유통업계는 우체국택배를 통해 물  
량을 배송하고 있다. 하지만 우체국택  
배는 늘어난 물량을 감당하고 있지 못  
하는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파  
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뚜렷한 대  
안도 없다는 점이다.

택배노조 측은 지난 9일 택배 근로자  
의 과로사 방지 등과 관련해 정부 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작년에 택배기사 16  
명이 과로로 사망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5명이 사망했다. 13일에도 1명이 쓰러  
져서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이번 주부터는 파업  
참여자 수와 배송 거부 물량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사측과 노조는 택배 분류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사회적합의 승리, 단협 체결 승리, 전국택배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인력 투입에 대한 시행 시점을 두고 이  
견을 보이고 있다.

민중기 롯데택배노조 강동지회장은  
“현재 협의를 하는 중인데 거기에서 결  
정된 내용을 진행해달라는 것”이라며  
“말로만 합의해놓고 진행되는 게 아무  
것도 없으니까 파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옥션, G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개별 택  
배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G  
마켓·옥션·G9 등 이베이코리아가 운영  
하는 온라인 쇼핑몰에는 지난 10일 택배  
노조 파업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이베이코리아 측은 “이베이코리아  
규정에 입점 판매자들이 3일 이내에 고  
객에게 배송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은 책임을 묻거나 하는 부분을 없  
었다”며 “따로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스  
마일배송과 같은 경우도 판매할 때 노  
동자 파업 이슈로 인해서 배송이 지연  
될 수 있다는 안내를 고객에게 하고 있  
다”고 전했다.

반면, 오픈마켓과 달리 쿠팡과 SSG  
닷컴 등 자체 물류를 운영하는 업체는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자체 배  
송에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있어서 택  
배노조 파업 여파를 피해갈 수 있기 때  
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가 지난 8  
일 2차 사회적합의기구 논의 결렬로 무  
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택배 서비  
스 차질을 막기 위해 우편집배원 1만  
6000여명을 택배 배송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체국택배 위탁 택배기사 약  
3800명 중 2700명이 준법투쟁 형식으로  
파업에 참여하면서 인력 운용에 어려움  
이 생겼다. 이에 우체국택배는 배송 지  
연 때 상할 우려가 있는 냉동·냉장 식품  
은 배송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우편집배원 노조인 전국공공운수노  
조 민주우체국본부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조의  
배송거부에 손쉽게 우체국 집배원을 희  
생양으로 활용해 배송거부를 무력화하  
고 집배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며 택배노조 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거  
부된 택배 물량을 집배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시간 줄  
이기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근로시간 줄이기 방안도 노조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택배 산업은 배  
송 건수로 수입이 결정되는 구조인데  
근로시간을 줄이면 수익감소로 이어지  
기 때문이다. 건당 수수료를 인상해야  
현재의 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정부  
의 합의안에는 이러한 부분이 빠져있다  
는 게 택배노조 측의 지적이다. 15일 노  
사정 3차 간 사회적합의기구회의 결과  
가 파업 장기화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  
망이다. 만약 15일 회의에서도 절충안  
을 찾지 못한다면 유통업계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선 기자·강준혁 수습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공모주 중복청약 막차 기업 어디?... 관심 ↑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불가  
에스디바이오센서·크라프트  
금감원 내주 최종승인시 가능



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공모  
주 중복청약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20  
일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  
감원 승인이 최종 승인할 경우 중복청약  
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중복청약  
막차를 탈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  
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법 시  
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복청약을 금지하고, 여러 건을  
청약했을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공모주를 배정한다고 밝  
혔다.

현재 중복청약 막차를 탈 것으로 전  
망되는 기업은 에스디바이오센서(SD  
바이오센서)와 크라프트이다. 2곳 모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당초 거론되  
던 카카오펍크와 카카오페이의 경우 예  
비심사 승인조차 나지 않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카카오펍크와 카카오페이는 지난 4

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를 제출했다. 이달 말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공  
모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 전망된다.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인 SD바이오  
센서의 경우 당초 이번주 내에 일반청  
약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금감원의 증  
권신고서 정정 요청에 공모 일정을 미  
뤘다. 지난 2010년 설립된 SD바이오센  
서는 체외진단 분야 전문 기업으로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제품을 10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  
다. SD바이오센서는 공모가 산정을 위  
한 비교기업 선정에서 추가수익비율(P  
ER)이 높은 글로벌 제약사를 의도적으  
로 선정한 것 아니냐며 기업가치 고평  
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비교기업에 체외진단용 의  
료기기 사업의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

인 국내 기업을 추가하며, 희망밴드 가  
격을 기존 6만6000원~8만5000원을 4만  
5000원~5만2000원으로 30% 이상 낮췄  
다. 청약이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7월 5~6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거  
쳐 공모가를 확정된 후 7월 8~9일 일반  
청약을 실시한다.

일반청약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  
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총 4곳을 통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또다시  
정정 요구를 받지 않는다면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게임 배틀그라운드 제작사인 크래  
프트의 경우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의 상  
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따라서 이번주  
안으로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으로부터  
통과될 경우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  
증권 등을 통해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크라프트는 5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외에서 발행된 주식  
이 4327만4070주임을 감안하면 크래  
프트의 추정 시가총액은 25조원을 넘어섰  
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쌍용차, 친환경차 생산 등 체질개선 안간힘

첫 전기차 본격 양산 돌입  
친환경 라인업 다양화로  
미래車 경쟁력 확보 나서  
産銀 금융 지원은 미지수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체질개선에 속도를 높인다.

쌍용차 노조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  
측의 지구 계획을 수용하면서 협력을  
다진한데 이어 미래 자동차 시장 경쟁  
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차 생산에 나선  
다.

15일 쌍용차에 따르면 프로젝트명  
‘E100’으로 개발해 온 첫 전기차 신차  
명을 ‘코란도 이모션’으로 확정하고 14  
일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

코란도 이모션(Korando e-Motion)  
은 코란도 브랜드 가치 계승은 물론  
전기차(EV)와 역동성(Motion)의 조합  
으로 고객의 감성(Emotion)에 충실하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사내  
공모를 통해 274점을 응모 받아 전문가  
의견수렴 후 10개를 최종 선정해 해외  
시장에서 동일한 모델명을 사용하기 위  
해 글로벌 상표소사를 거쳐 최종 확정  
했다.

코란도 이모션은 패밀리카로 손색 없  
는 거주공간과 활용성을 갖춘 국내 첫  
준중형 SUV 전기차로 전제적인 디자  
인은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유선형 라인  
을 가미, 어떤 드라이빙에 최적화된 스타  
일링을 추구했다.

코란도 이모션은 반도체 수급 문제  
및 협력업체 부품공급 상황 등 제한된  
생산량으로 인해 우선 10월 유럽 시장  
부터 출시를 위해 8월 선적할 계획이  
며, 국내는 반도체 등 부품수급 상황을  
감안해 출시일정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  
다.

쌍용차는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도 진

행하고 있다. 2022년 출시를 목표로 중  
형 SUV ‘J100’도 개발중이다. J100(프  
로젝트명) 디자인은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헤리티지(Heritage)인 ‘강  
인하고 안전한 SUV’라는 본질을 바탕  
으로 새롭고 모던한 정통 SUV의 스타  
일링을 구현했다.

쌍용차는 소형 SUV 티볼리 브랜  
드를 비롯해 준중형 SUV 코란도, 중형 S  
UV J100, 대형 SUV 렉스턴 브랜드가  
지 SUV 풀라인업을 구축해 SUV 전문  
기업으로 위상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코  
란도 이모션을 필두로 미래를 책임질  
중형 SUV 전기차, 전기차 픽업 모델 등  
친환경차 라인업도 다양화할 계획이  
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성공적인  
M&A 추진으로 기업 회생의 발판을 마  
련하고 급변하고 있는 업계 트렌드 대  
응을 위한 신차 출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는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신 성장동력을 발굴  
하여 미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쌍용차의 이같은 노력에도 산  
업은행과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인수 의향자들의 사업  
계획이 나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회장은 쌍용  
차의 지구안에 대해 “핵심 요소가 충족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 회장은 ‘투자자 관점’에서 봐  
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구안을 내 놓  
은 쌍용차 노사 측의) 노력은 감사하지  
만 그게 충분한지도 우리가 꼼꼼히 생  
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DL이앤씨, 시장 복귀 두 달 만에 1兆 수주

» 1면 ‘수도권 공략’서 계속

DL이앤씨는 지난 5월 산본 우ruk  
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며 리모델  
링 시장에 복귀한 이래 이달 5일 수원  
영동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에 이어  
이번 사업까지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면  
서 복귀 후 두 달이 채 안되는 사이 1조

334억원의 리모델링 수주고를 달성했  
다.

쌍용건설도 ▲광명시 철산신신  
(4600억원) ▲송파구 가락쌍용1차  
(8000억원) 등 굵직한 리모델링 사업  
을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하면서 수주 신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이달 태광맨션 가  
로주택사업(800억원) 등을 수주하면서

1조3400억원을 기록했다. 쌍용건설은  
현재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산본 개나  
리주공13단지 리모델링 수주를 추진 중  
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 등 재  
건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축 단  
지들이 새 아파트에 살기 위해 비용부  
담이 적은 리모델링 사업을 선택하고 있  
다”며 “2014년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  
정 이후 본격화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 자산 72조 ‘신한라이프’ 내달 출범... 생보 ‘빅4 시대’ 개막

당기순이익 3961억... 업계 2위 다채널 보험 비즈니스 모델 구현 채널 특성 맞는 ‘4종 신상품’ 선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하는 일류(一流) 회사를 만들겠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통합해 탄생하는 신한라이프 기자간담회에서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 내정자는 “향후 다른 회사들보다 한 발 앞선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기존 보험업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일류 보험사로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한라이프는 이날 새로운 비전 ‘뉴라이프, 라이프(NewLife, Life)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도 소개했다.

신한라이프의 2020년 말 양사 실적 단순 합산 기준 총자산은 약 71조5000억원으로 업계 4위에 달한다. 당기순이익은 3961억원으로 업계 2위, 수입보험료는 약 7조9000억원으로 업계 4위 수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 내정자가 15일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주요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신한생명

준이다. 지급여력비율(RBC)도 314.1%에 이른다.

성 사장은 “튼튼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자산을 평생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경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라이프는 통합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널

보험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한다. 2040세대에 최적화된 기존 오렌지라이프 FC채널과 4060세대에 최적화된 기존 신한생명 FC채널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다. 전화로 보험을 판매하는 통신판매(TM) 채널, 전화와 대면 영업을 함께 하는 하이브리드 채널, 모바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디지털 보험채널까

지 갖추게 됐다.

신한라이프는 출범과 동시에 채널의 특성에 맞는 총 4종의 신상품도 선보인다.

성 사장은 “신한라이프는 고객의 필요에 맞는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채널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고객자산가 그룹을 담당하는 웰스매니저(WM) 조직과 상속증여연구소도 운영할 예정이며, GA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영철 고객전략그룹장은 “중신보험의 경우 아꼈을 때만 보장을 해주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던 경우가 있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고객에게는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중신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건강보험도 수면관련된 부분을 결합해 생활 밀접한 건강보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한라이프는 ▲고객 손안의 휴대폰

에서 24시간 동안 모든 보험서비스 제공 ▲회사 내 보험업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에 디지털 기술 적용 등 두 가지 디지털 전략 방향도 새롭게 수립했다. 이를 위해 신한라이프는 디지털 조직을 1그룹 4개 부서로 확대 편성했다.

성 사장은 새로운 영역 개발로 신성장 동력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신한금융플러스는 대형 GA 인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에 실현했다. 베트남 해외법인인 현재, 현지 당국의 설립 인가를 획득한 후 내년 본격적인 영업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성대규 사장은 “신한라이프는 고객이 믿을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에 충실한, 진심을 품은 보험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에 가장 앞장서는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 누구나 수수료 면제... 신한 ‘급여클럽’ 새단장

서비스 출시 2년 만에 66만명 가입 고객 편의성 중심... 이용 화면 개편

신한은행은 연금, 용돈, 생활비 등 소득이 있는 누구에게나 수수료 면제와 같은 급여고객 혜택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클럽’을 리뉴얼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시 2년만에 66만명이 가입한 급여클럽은 연금, 용돈, 생활비 등 다양한 소득을 급여로 인정한다. 급여클럽을 가입하고 매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금하는 고객에게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신한은행 ATM 인출 및 이체 수수료 면제 등 급여혜택은 물론 월급봉투

라는 응모권을 통해 최고 200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급여클럽은 ▲월급봉투와 급여클럽 혜택 중심으로 이용 화면 전면 개편 ▲매월 15일부터 5일간만 응모해 레플(추첨) 방식으로 ‘선물하기 적금’ 30만원을 10명에게 제공하는 ‘럭키드로우’ ▲3개월 연속으로 소득을 이체하고 월급봉투를 수령한 고객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제공하는 ‘보너스봉투’ 등 사용하기 편리한 화면과 새로운 혜택을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이번 리뉴얼을 기념해 ‘급여클럽, Cool하게 쏘시다’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7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급여클럽’ 최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2만명에게 배스킨라빈스 싱글믹 아이스크림 쿠폰 ▲최초 가입 후 7월 중 소득을 이체해 월급봉투를 수령한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 비스포크 에어컨(1명), 다이슨 퓨어쿨(10명), 설빙 망고빙수 쿠폰(500명)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급여클럽의 혜택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급여고객의 디지털멤버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공동 프로젝트 체결식에 참석한 김상균 교수(오른쪽)와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한카드

## 신한카드, 학계와 메타버스 공동 프로젝트

김상균 교수와 맞손

신한카드가 최근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가상현실)와 관련 학계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신한카드는 을지로에 위치한 신한카드 본사에서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 및 ‘메타버스’ 저자 김상균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프로젝트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메타버스에 대한 금융권의 활용 방안을 창출하고 메타버스 메인 유저인 Z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메타버스가 더 이상 미래

의 개념이 아닌 현실 세계 속에 이미 들어 있다고 판단, 새로운 흐름이 된 메타버스를 국내에 소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김상균 교수와 손을 맞잡았다.

김상균 교수는 그의 저서 ‘메타버스’,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 등의 저서를 통해 “현재의 흐름이 과거 인터넷, 스마트폰이 만든 혁명보다 더 거센 정보화 대혁명에 될 것이며 메타버스 형태 변혁은 기업들의 쿼텀 점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속에서 기업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위치를 선점하느냐가 현재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

## 반도체 품귀... 캐롯손보, 플러그 공급 재개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산정기

캐롯손해보험이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캐롯손보는 퍼마일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캐롯플러그 지급을 정상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캐롯플러그는 매월 탄만큼 결제하는 퍼마일자동차보험이 운용되는데 필요한 핵심기이다. GPS를 기반으로 주행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월별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캐롯과 SK텔레콤의 기술력이 반영된 정보통신기술(IT) 기이다. 작년 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캐롯플러그 배송이 중단됐다.

캐롯손보는 글로벌 반도체사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캐롯플러그 공급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캐롯손보는 캐롯플러그 공급 재개에

이어 2세대 캐롯플러그 출시를 앞두고 있다. 2세대 캐롯플러그를 통해 정밀한 운전습관 빅데이터를 쌓고, 이를 정제해 알고리즘화할 예정이다. 캐롯의 안전운전 알고리즘은 퍼마일멤버스 프로그램에 반영해 고객이 안전운전을 할수록 다양한 포인트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순환 사이클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베타서비스 중인 퍼마일멤버스 프로그램도 퍼마일자동차보험비가입 고객에게도 이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퍼마일자동차보험은 캐롯플러그 지급 지연에도 불구하고 이어 4개월여 만에 가입자 20만명을 돌파한 만큼 고객의 호응이 뜨겁다”며 “이번 캐롯플러그 지급 정상화를 통해 상반기 리스크 해소는 물론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퍼마일자동차보험 신규 고객 유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 KB국민카드

### 렌탈 할인 품은 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모두렌탈’ 과손잡고 음식물처리기, 공기청정기 등 렌탈 용품 이용료 자동 납부 시 매월 최대 1만 7000원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모두렌탈 KB국민카드’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두렌탈 KB국민카드는 음식물처리기, 공기청정기, 냉장고 등 모두렌탈의 렌탈 요금을 자동 납부하고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 2000원, 7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 7000원이 할인된다.

자동 납부 신청한 렌탈 제품이 2건 이상이면 렌탈 요금을 합산해 전월 이용 실적에 따른 월 최대 할인 금액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의 연회비는 1만5000원이며 카드 신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이영석 기자

## 하나銀, 4350억 규모 ESG 후순위채권 발행

지속가능채권 형태

하나은행이 4350억원 규모의 원화 ESG 후순위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사업에 사용하는 ‘녹색채권’과 금융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사회채권’이 결합된 지속가능채

권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번 발행 채권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형태로 만기는 10년이며, 발행 금리는 국고채 10년물에 49bp 가산한 2.58%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발행을 통해 자본적정성 제고와 더불어 사회적 기업의 책임을 다하여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D램과 낸드플래시 하나로

## 삼성전자, '5G 폰' 공략 멀티칩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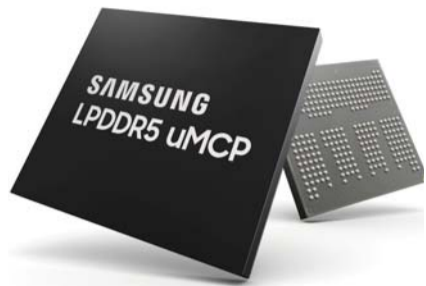
'LPDDR5 uMCP' 신제품 출시  
대용량 서비스 안정적 지원  
다양한 용량으로 선택폭 넓혀

삼성전자가 d램과 낸드플래시까지 하나로 합쳤다.

삼성전자는 LPDDR5 uMCP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D램과 낸드플래시를 결합한 멀티칩 패키지다. 최고 성능 메모리인 LPDDR5와 UFS3.1을 지원하는 최신 낸드플래시를 결합했다.

크기는 가로 11.5mm에 세로 13mm에 불과하다. 모바일 기기 설계에 유용



LPDDR5 uMCP / 삼성전자

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저가 스마트폰 사용자에도 고해상도 콘텐츠 등 대용량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량은 모바일 D램은 6GB에서 12GB까지, 낸드는 128GB부터 512GB로 다양하게 구성해 제조사에 폭넓은 선택폭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 손영수 상무는 "이번 제품은 고해상도 영상의 끊임없는 스트리밍과 고사양 게임은 물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까지 5G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메모리 솔루션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협력을 강화해 급성장하는 5G 스마트폰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6G 기술 이끌 의장사에 'LG전자' 선정

美 3대 통신사·반도체 등 48개 기업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 분야 의장

LG전자가 6G 기술도 주도하게 됐다.

LG전자는 지난 3일 미국통신산업협회(ATIS) 주관 '넥스트 G 얼라이언스(Next G Alliance)'의 의장사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넥스트 G 얼라이언스'는 ATIS가 6G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창립한 단체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와 장비 및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 4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총 6개 분과로 웰컴, 노키아, HPE 등이 의장사를 맡고 있다.

LG전자는 CTO부문 이동통신 책임연

구원(박사)이 단체의 애플리케이션 분야 의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으로, 향후 6G 관련된 선행 기술 논의 및 서비스 방향성 제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애플리케이션 분과는 6G의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한 기술 요구사항을 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6G 이동통신은 2025년경 표준화 논의 시작해 2029년에는 상용화가 예상된다. 5G 대비 한층 더 빠른 무선 전송속도와 저지연·고신뢰의 통신지원이 가능하다. 사람, 사물, 공간 등이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물지능 인터넷(AIoE: Ambient IoE)을 가능하게 할 수단으로 여겨져 유수의 글로벌 업체들이 앞다투어 뛰어 들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19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손잡고, 'LG-KAIST 6G 연구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글로벌 무선통신 테스트 계속 장비 제조사 키사이트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6G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전자 미래기술센터장 김병훈 전무는 "5G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핵심 산업을 선도하는 기반 기술로 인식되면서, 5G 이후 차세대 6G 이동통신에 대한 기술 선점 경쟁이 글로벌로 본격화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준비를 통해 6G 이동통신의 표준화 및 상용화 단계에서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 아우디 전기차에 초고성능 타이어 공급

한국타이어 '벤투스 S1 에보3 ev'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는 아우디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스포츠카 모델인 'e-트론 GT'에 전기차용 초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3 ev'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벤투스 S1 에보3 ev는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의 특성에 맞춘 전기차용 초고성능 타이어로, 강력한 주행성능을 구현하면서도 무게와 소음, 회전저항 등을 최소화했다. 특히 엔진음이 없는 전기차 특성에 맞춘 트레드 패턴을 적용해 노면 소음을 줄였다.

한국타이어는 아우디와 기술력, 품질에 대한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다. 프리미엄 세단 A3, A4부터 프리미엄 SUV 라인업 Q3, Q5, Q7과 SQ7, Q8과 SQ8 뿐 아니라 RS Q8, RS7 스포츠백, RS6 아반트, RS4 아반트, RS5 쿠페, TTRS 등 아우디 RS 라인업까지 다양한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기차 e-트론에도 신차용 타이어



아우디 최초 순수 전기 스포츠카 'e-트론 GT'.

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새로운 컴파운드 기술을 통해 내구성을 극대화했다"며 "온도와 시간, 압력 등의 균형을 최적의 비율로 구현하는 최첨단 기술력으로 더 높은 내구성을 확보하면서도 마찰력과 전반적인 회전저항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며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하고 전기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가 상용화되기 전부터 전기차 세그먼트별 맞춤형 기술 개발 전략을 세워 관련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양성운 기자

삼성 더 프레임

몬드리안 등 작품 23점 추가

삼성전자 더 프레임이 몬드리안 등 새로운 작품을 담는다.

삼성전자는 스페인 티센 보르네미사 국립미술관과 협업해 20세기 주요 미술 작품 23점을 추가로 서비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작품은 피에트 몬드리안과 바실리 칸딘스키 등 20세기를 대표하는 유명 작가 작품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작품은 더 프레임 '아트스토퍼'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 40여개 유명 미술관과 1500여점 작품도 함께 제공된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성일경 부사장은 "이번 협업으로 더 다양한 20세기 대표 미술 작품들을 더 프레임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신진 작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예술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기아 더 뉴 K9 전면모습.

## 기아, 3년 만에 'K9 부분변경 모델' 공개

최고 수준 첨단 주행 사양 등 탑재

기아가 3년 만에 대표 플래그십 세단 K9의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을 공개했다.

기아는 15일 플래그십 세단 '더 뉴 K9'의 온라인 쇼케이스 영상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더 뉴 K9은 동급 최고 수준의 다양한 최첨단 주행·안전·편의 사양과 품격있고 모던한 디자인 등으로 대형세단에 걸맞은 최상의 상품성을 갖췄다. K9은 국내 세단 시장에서 G80과 E클래스, 5 시리즈, S90 등과 치열한 경쟁에 나선다.

더 뉴 K9은 최고 수준의 첨단 주행·안전·편의 사양을 대거 탑재했다.

기아는 더 뉴 K9에 첨단 주행 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승차감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했으며 탑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적용했다.

세계 최초로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PGS)과 기아 최초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적용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행 환경을 구현했으며, 전 트립에 기본으로 탑재한 고속도로 주행 보조2(HDA2),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MCB)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통해 주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 터치 방식으로 운전자와 상호작용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지문 인증 시스템 ▲필기 인식 통합 컨트롤

러 ▲터치 스크린 기능이 적용된 뒷좌석 듀얼 모니터 등을 새롭게 장착했다.

더 뉴 K9은 신차 수준으로 변경된 고급스러운 내·외관을 통해 품격있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거듭났다. 외장은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에 V 형상의 정교한 크롬 패턴을 적용해 플래그십 세단의 존재감을 강조했고, 좌우 수평으로 리어램프를 연결해 와이드한 느낌을 살리는 동시에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내부는 시트의 허리받침, 쿠션까지 확대된 쉐딩 패턴과 고급스러운 리얼우드 소재, 다이아몬드 패턴의 컨트롤러 등을 통해 인테리어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더 뉴 K9은 넉넉한 힘과 정숙성을 갖춘 3.8가솔린과 역동적인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3.3터보 가솔린 총 2개 모델로 운영되며, 모델별로 달리 구성했던 기존의 트립 체계를 2개(플래티넘, 마스터즈)로 단순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3.8가솔린 플래티넘 5694만원, 마스터즈 7137만원이며, 3.3터보 가솔린의 경우 플래티넘 6342만원, 마스터즈 7608만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더 뉴 K9은 기아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고객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차량이다"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위니아 컬러팝 전자레인지

/위니아닷컴

## 위니아닷컴 MZ세대 겨냥 '컬러팝 전자레인지'

비비드톤 오렌지 컬러 채택

위니아닷컴이 MZ세대를 겨냥한 전자레인지를 새로 선보였다.

위니아닷컴은 '위니아 컬러팝 전자레인지(20L)'를 1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10만원대다.

이 제품은 MZ세대를 겨냥해 차별화된 비비드톤 오렌지 컬러를 채택했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최적의 메뉴 기능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훈밥의 달인 ▲해동의 달인 ▲생활의 달인 ▲조리의 달인 등 원터치 메뉴로 만들었다.

성능도 개선했다. 오목거울의 원리(RRS)를 이용해 음식물을 균일하고 빠르게 가열해준다.

/김재웅 기자

# 1급수에서만 사는 천연기념물 수달 원앙 물총새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천 죽당천, 멸종위기종 1급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서식

깨끗한 수자원을 지키기 위해  
SK하이닉스는 ESG 경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 물 사용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밝힙니다  
탄소 공개 프로젝트 물 경영 부문 대상 수상
- 최적의 정화시스템으로 물 사용량을 줄입니다  
방류수 재활용 시스템 및 냉각탑 재이용 시스템 구축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지역 수생태계를 지킵니다  
수질 자동측정기를 통한 생태계 피해 방지

## LG유플러스-LG CNS

## 금융권 'AI 콜센터 시장' 출사표

금융용어 등 언어적 특성 학습 후 연내 'AI콜센터 솔루션' 론칭 목표 초거대 AI 연구 활용 등 혁신 도전

LG유플러스는 LG CNS와 함께 인공지능(AI) 콜센터(AICC) 솔루션 사업에 공동 진출한다고 15일 밝혔다.

AI콜센터는 금융권 등 고객의 문의가 많은 기업 고객들이 사용하는 전화 상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AI를 통해 고객의 요청사항을 손쉽게 접수하고, 비교적 단순한 해결방안의 경우, 상담원 대신 AI 콜센터가 답변을 제공해 상담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AI콜센터가 상용화되기 위해 ▲고객의 음성을 AI가 실시간으로 인식하고(음성인식) ▲텍스트로 변환된 고객의 문의사항을 파악해 답변을 찾고(자연어처리) ▲만들어진 답변을 음성으로 송출하는 기술(음성합성) 등 기능을 하나의 솔루션에 담아내야 한다.

이 솔루션을 바탕으로 통신사업자로서 기업 고객사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와

IT서비스 전문기업인 LG CNS가 힘을 합쳐 금융권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오픈한 무인매장인 U+엔택트스토어를 통해 AI콜센터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축적했다. U+엔택트스토어에서는 유심개통·기기변경만을 지원하는 타 통신사의 무인매장과 달리 신규가입·번호이동 개통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고객 문의에 대해 채팅 상담, 상담사 연결, AI 상담 등 비대면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 CNS는 국내 금융권에 차별화된 AI콜센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FCC(Future Contact Center) 사업팀을 신설하고 AI콜센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LG CNS의 DAP Talk(디에이피톡) 및 AI-Connect 플랫폼은 자연어처리·음성인식·음성합성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쉽고 빠른 대화 흐름 제작이 가능하며 고객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최근 신규 고객을 확보하며 실력을 검증받았다.

양사는 연내 고객이 발화하는 금융

용어와 사투리 등 언어적 특성을 AI에 학습시켜 서비스 밀도를 개선하고, AI콜센터 솔루션 브랜드를 정하는 등 상품화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LG AI 연구원에서 개발에 착수한 초거대 AI 관련 연구 결과물을 활용해 베테랑 AI 상담사, 상담사용 AI 어드바이저 등을 개발함으로써 고객센터 생산성 혁신에 도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연구원과 대용량 데이터 준비, 우월한 STT(음성텍스트변환) 성능 확보, LG만의 초거대 AI 언어 모델 개발 등 영역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용성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화할 예정이다.

임장혁 LG유플러스 기업기반사업그룹장(상무)은 "AI 콜센터는 금융사뿐만 아니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홈쇼핑,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폭넓은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며, "LG유플러스가 경쟁우위에 있는 금융권 시장을 중심으로 AI 콜센터를 확대해 고객 니즈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 SKT, 양자보안 '생체인증 카드키' 출시

아이디퀀티크와 세계 최초 선보여

SK텔레콤과 아이디퀀티크(IDQ), 생체인증 벤처기업 옥타코는 양자난수 생성기술이 적용된 지문인식 보안키 '이지퀀트(EzQuant)'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자난수생성기술(QRNG)이란 양자 역학 특성을 이용해 예측 불가능하고 패턴이 없는 순수 난수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번 '이지퀀트' 출시로 양자보안 기술 적용 분야는 큰 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양자키분배기(QKD)를 기반으로 양자암호통신망을 공급한 데 이어, 양자난수생성기(QRNG)가 적용된 스마트폰 '갤럭시 퀀텀'을 출시했으며, 이번에 생체인증 기반 보안키가 추가됐다.

'이지퀀트'는 온라인 인증이 가능한 FIDO를 기반으로 한 카드형 지문보안 키에 양자난수생성기술을 결합한 것이다. FIDO(Fast IDentity Online)은 '신속한 온라인 인증'을 뜻하며, 온라인에서 ID, 비밀번호 없이 생체인식 기



SK텔레콤-IDQ-옥타코는 양자암호 적용 생체인증 카드키를 세계 첫 출시했다. /SKT

술을 활용해 개인 인증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이지퀀트'는 기존에 생체인증으로 수행하던 PC로그인 및 사내 그룹웨어, ERP, CRM 등 업무에 필요한 모든 인증과 연동할 수 있어 적용 분야가 대폭 확대된다. 카드키 내에 있는 NFC 기능을 활용해 사무실 출입에도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IDQ, 옥타코는 양자보안 FIDO 생체인증 보안키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올해 미국 및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처럼 근무하세요"

KT 스마트워킹 '마이오피스' 에그로 사내망 IP 사외서 사용

KT가 코로나19로 활성화된 기업들의 재택근무 환경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워킹 서비스를 선보였다.

KT가 재택근무나 외근, 이동 중에도 사무실의 네트워크 접속 환경을 손쉽게 구현해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마이오피스'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이오피스' 서비스는 무선통신망(LTE) 신호를 받아 무선랜(와이파이)으로 바뀌는 에그(EGG) 단말을 통해 구현된다. '마이오피스 에그'는 일반 에그와 달리 기업별 다양한 사내 보안정책이나, 사내망 IP를 사외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VPN(가상사설망) 환경과 달리 업무용 노트북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수동으로 IP 변환을 할 필요가 없어, 회사 밖에서도 간편하고 빠르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전용망을 통해 고객사 사내망에 직접 데



마이오피스 에그로 사내망에 접속 중인 KT 직원.

이터를 전송하는 등 보안성도 높다. 예그한 대에 최대 15명 사용자 등록이 가능해 기업 환경이나 직원들의 업무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마이오피스' 사용료는 예그한 대당 월 715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데이터 사용을 위해 기업의 업무 환경에 맞게 기업용 데이터 요금제를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기업 고객들은 월 300GB부터 200TB까지 총 10종의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다.

KT는 지난해 '마이오피스'와 동일한 구성방식을 '5G 기반 정부업무망' 시험서비스로 구축해 호평을 받았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 넓은 실내·적재공간... 가족 캠핑카로 '딱'



## 기아 카니발 7인승 리무진

4인가족 캠핑용품 적재 무리없이 실내 공간은 고급스러움으로 무장 정속하고 부드러운 주행 돋보여

'집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불과 3~4년 전까지만해도 불편한 잠자리와 화장실 등의 문제로 캠핑을 다니지 않던 지인들이 최근에는 자연스럽게 캠핑을 즐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캠핑인구는 2019년 기준 약 600만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에는 7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영향은 자동차 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주변 지인들에게 "애들과 캠핑다니는데 짐이 늘어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차를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어떤게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4인가족 기준 캠핑을 떠난다면 텐트와 코펠, 테이블, 침낭, 아이스박스 등 챙겨야 할 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캠핑의 매력에 빠져들면 캠핑 용품은 더욱 증가한다. 루프박스 등 별도의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 4인가족이 세단에 짐을 싣고 편안하게 이동하는 건 쉽지 않다. 결국 캠핑 마니아들은 대형 SUV나 미니밴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최근 시승했던 차량 중 가장 매력적인 모델은 7인승 카니발리무진이다. 4



기아 4세대 카니발 주행모습.

인가족이 캠핑 장비를 싣고 부모님과 함께 캠핑을 떠나다 적재 공간은 물론 실내 공간까지 매우 만족스러웠다. 실제 4세대 카니발은 출시 전부터 국내 자동차 판매 사상 최단기간 최다 예약 신기록을 세웠다. 4세대 카니발은 사전 예약 하루만에 2만 3000대가 예약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였다.

4세대 카니발은 신형 N3 플랫폼이 탑재되면서 이전 세대 대비 덩치가 커졌다. 신형 카니발의 전장·전폭·전고는 5155·1995·1740mm로 이전 세대 대비 전장과 전폭이 각각 40·10mm 늘었다. 축간거리 역시 3060mm에서 3090mm로 소폭 길어졌다.

특히 3열 시트의 상킹을 고려해 바닥면을 깊숙하게 제작해 엄청난 양의 짐을 적재할 수 있다. 3세대 쏘렌토 트렁크(605L)에 힘겹게 적재했던 캠핑 장비를 카니발(627L)에는 3열 시트를 접지 않고 모두 적재할 수 있었다.

실내 공간은 고급스러웠다. 2열에 설치된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는 이를

에 걸맞게 슬라이딩과 좌우이동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 시트는 버튼 조작 한번으로 등받이와 엉덩이 쿠션의 각도를 조절해준다. 마치 비행기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연상케 했다.

주행 질감은 부드러웠다. 풍절음이 나 노면 소음, 엔진 진동 등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3세대 카니발은 상용 디젤엔진인 R 엔진을 탑재했지만 4세대 카니발은 대형 SUV에 탑재된 스마트스트림 엔진을 적용했다. 자연스럽게 엔진 소음과 진동은 줄어들었다.

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반자율주행 기능도 만족스러웠다.

평균 실연비는 공인 연비인 12.6km/L를 뛰어넘는 13.8km/L를 기록했다.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주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수치다. 카니발이 '아빠차'라고 불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4세대 카니발 가격은 트림에 따라 3160만~4354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 랜드로버, '뉴 디펜더' 기반 수소차 만든다

연내 FCEV 프로토타입 테스트

랜드로버 디펜더도 수소연료전지로 개발된다.

재규어랜드로버는 뉴 디펜더 기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FCEV) 프로토타입을 연내 테스트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발표한 리이매진 전략 일환이다. 2036년까지 배출가스 제로, 탄소 중립 등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다. FCEV는 배터리전기차(BEV)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기술로, 2018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다.

수소연료차 보급뿐 아니라 충전 시설도 늘어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의 첨단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프로젝트 제우스' 일환으로, 영국 정부 지원을 받는 어드밴스드 프로펠션센터에 일부 펀딩을 받고 있다. 수소 파워트레인을 최적화해 효율과 성능 등을 만족할만큼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델타 모터스포츠와 오스트리아 AVL, 마릴리 오토모티브 시스템즈 등 파트너들과도 함께하고 있다.

/김재운 기자 juk@



# 유가 상승에 '원유개미' 好好...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

원유 선물 ETN, 일제히 상승  
하반기 석유 수요회복 기대감 ↑

증산압박에 상승 제한 가능성도  
WTI선물 투자시 단기전략 유효

원유 선물 상장지수상품(ETP)이 연일 호조세를 기록 중인 가운데 국제유가 전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전 세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 움직임 속에 나타나는 석유 수요 회복세가 유가 하방경직성을 키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낙관론은 경계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원유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매매를 단기 전략으로 활용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레버리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ETN은 이달 들어 전 거래일까지 13.83% 오름세를 기록했다. 유가 오름세에 따라 WTI 일별 변동률의 2배로 연동되는 레버리지 상품의 수익률도 호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 QV 레버리지 WTI원유선

〈국내 주요 원유 관련 ETP 이달 수익률〉

(14일 기준)

상품명	상승률(%)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선물ETN	13.83
QV 레버리지 WTI원유선물ETN	12.78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선물ETN(H)	12.31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ETN(H)	12.14
KBSTAR 미국S&P원유생산기업(합성H)	9.33
KODEX WTI원유선물(H)	6.23
대신 WTI원유선물ETN(H)	6.19
미래에셋 원유선물혼합 ETN(H)	6.07
KODEX 미국 S&P 에너지(합성)	5.93
신한 브렌트원유선물 ETN(H)	5.37

물ETN은 12.78% 올랐고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선물ETN과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ETN은 각각 12.31%, 12.14%씩 상승했다. 대신 WTI원유선물ETN과 KODEX WTI원유선물(H), 미래에셋 원유선물혼합 ETN(H) 등도 6%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원유 관련 ETP를 향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 유가가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

소(NYMEX)에서 WTI 7월물은 배럴당 1.29달러(1.85%) 오른 70.91에 마감했다.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6월 에너지전망보고서에서 원유 공급 증가가 있지 않는 한 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계속된 유가 강제 현상은 하반기 석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에서 기인한다. 6-8월은 연중 최대 성수기로 평가되는 데다 석유수출국기구(OPE

C)와 여기 가입되지 않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는 여전히 완만한 증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말 쯤에는 경제 정상화 움직임으로 원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원유 시장 내 뻣뻣한 수급 전망이 계속 유지되는 중"이라며 "OPEC+의 완만한 증산 기조, 3분기 미국의 성수기, 유럽 바캉스 시즌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유가의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 목소리도 크다. OPEC+를 겨냥한 증산 압박이 하반기 유가의 추세적 상승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성수기 진입 후 정유시설 가동률 상승은 긍정적이거나 원유 재고 감소폭을 압도하는 정유제품 재고 증가, 정제마진 반락은 오히려 석유 수요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수빈 연구원 역시 "3분기 미국 성

수기가 끝나고 하반기 말로 갈수록 수급 여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며 "국제유가의 상승 압력도 약화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WTI 선물 상품 투자 시 철저히 단기 투자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WTI 선물에 투자하는 ETP는 매달 다음 월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기간 투자 시 현물과 괴리가 커질 수 있어 유가가 필요하다. 만일 꾸준한 유가 상승을 전망한다면 만기 시 롤오버 비용이 있는 선물 상품보다 원유 관련 기업을 담으라는 것이 공통된 조언이다.

실제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원유 생산 기업의 성과를 추종하는 ETF인 KBSTAR 미국S&P원유생산기업(합성H)도 이달 들어 9.33% 오르며 원유 선물 ETP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 이외에 엑손모빌·셰브론 등 미국 에너지기업에 투자하는 'KODEX 미국 S&P 에너지(합성)'도 5.93% 상승하며 선전 중이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현대건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시행

초기 협력사 안전관리 강화 차원  
부담 방지 반환보증서도 미징구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현장 그레이존(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지원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 부담없이 초기 현장 안전부터 관리하는 제도다.

특히 선지급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지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했다.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가 안전지원비 투입으로 현장에서



현대건설 현장 직원들이 비상사태훈련에 임하고 있다. /현대건설

발생되는 그레이존과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불분명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극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적기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모든 현장에 전방위적인 안전제도 마련 및 실시를 통해 협력사와 함께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해 안전관리에 힘쓰고 상생하며 건설현장 산업안전관리 환

경을 확고히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지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하는 동반성장 위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 신한금융투자 업계 최초 '베트남 여신전문회사 김치본드' 발행

339억 규모 2년 만기 발행주관 성공

신한금융투자가 국내 증권사 최초로 베트남 여신전문회사의 김치본드 발행을 단독으로 주관하는 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베트남 현지 기업인 미래에셋 파이낸스 컴퍼니(MAFC)의 3000만달러(339억원) 규모 2년 만기 김치본드 발행 주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김치본드 발행회사인 MAFC는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100%로 설립된 베트남 여신전문회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시장에 침투하며 베트남 소비자금융업 5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달의 단독 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는 다수의 동남아시아 여전업 딜의

취급 트랙레코드를 기반으로 베트남 현지 법인과 함께 MAFC에 자금조달 방법을 제안했다. 코로나19 발생 영향으로 김치본드 발행이 연기됐으나, 발행사와 지속적인 영업 네트워크를 이어왔으며 시장 안정화 시점에 맞춰 김치본드 발행 재추진에 성공했다. 특히 발행 제안부터 조달에 대한 독점적 권한 획득 등을 얻어내며 큰 주목을 받았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밈' 주식 열풍 속 성장주 에어비앤비 1위

### 해외주식 Click

백신 효과로 여행 재개 기대감에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주목  
메타버스 플랫폼 로보록스 '2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인기를 끄는 '밈(Meme) 주식' 인기가 거세다. AMC엔터테인먼트와 게임스톱 등 기존 밈 주식 종목에 이어 클로버헬스인베스트먼트와 웬디스 등 새로운 밈 주식을 발굴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반면 금리 상승을 의식한 상장지수펀드(ETF)나 에어비앤비, 로보록스 등 성장주로 분류되는 종목들도 매수했다. 밈 주식 등 부수적으로 단기적 매매를 하면서도 장기투자용으로 우량한 경기민감주와 성장주도 사들이는 모습이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 거래일 기준 지난 한 주(7일~14일) 동안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1위 종목은 에어비앤비(4043만달러)로 집계됐다. 꾸준히 첫 번째 선택지로 지목됐던 테슬라와 AMC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급등주마저 제쳤다. 빠른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로 더 많은 여행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자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에 매수세가 향했다.

한 주 상승폭은 0.16% 수준으로 140달러대 후반 박스권에 갇혀있지만 낮은 진입장벽과 온라인 사용 증가세 등 성장 가능성을 지켜보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꼽히는 로보록스가 227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미 지방채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인 아이셰어 MUB(ISHARES NATIONAL AMTFREE MU)도 1988만달러 어치를 순매수하는 등 지방 국고채 ETF 금리 상승기 대응책으로 꾸준

〈국내투자자 순매수 상위 해외주식 10종목〉  
(6월7일~14일, 단위: 달러)

순위	종목명	순매수액
1	에어비앤비	4043만
2	로보록스	2270만
3	iShares NATIONAL AMTFREE MU(MUB)	1988만
4	AMC엔터테인먼트	1973만
5	애플	1943만
6	iShares TIPS Bond ETF (TIP)	1788만
7	알파벳	1743만
8	테슬라	1573만
9	SPDR S&P500(SPY)	1344만
10	보잉	1297만

/한국예탁결제원

히 인기를 끄는 모습도 확인됐다. 장단기 금리차 확대 국면에서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 거론되는 iShares TIPS Bond ETF(TIP)도 1788만달러로 순매수 상위권에 올랐다.

밈 주식에 대한 투기적 수요는 여전히 많다. 같은 기간 최근 2거래일 동안 33.14% 급등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AMC엔터테인먼트를 1973만달러 규모로 사들였고, 블랙베리(589만달러), 게임스톱(376만달러) 등 다른 밈 주식도 순매수 상위 50위 안에 포진했다.

기존에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 역시 순매수 상위권에 자리했다. 애플(1943만달러)과 알파벳(1743만달러), 테슬라(1573만달러)와 S&P500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SPDR S&P500'(SPY·1344만달러) 등이 10위권에 올랐다.

시장에서는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나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적 추정치 변화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송태화 기자

# 국제유가 70달러선 회복... 정유업계, 하반기 실적반등 박차

코로나 백신 접종 등 경제 활동 ↑  
항공유 등 글로벌 석유수요 개선  
국제유가 지속 상승시 수익성 증가

정유업계가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을 하회하며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수요 회복과 함께 점차 업황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경제 활동 재개에 따라 시장 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풀이다. 점차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는 올해 1월 초 50달러대였으나 이달 들어 70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올 초 47.62달러까지 떨어졌던 WTI(서부텍사스산 원유)도 3거래일 연속 배럴당 7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국제유가는 각각 ▲두바이유 72.01달러 ▲브렌트유 72.86달러 ▲WTI 70.88달러 등이다.

한국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석유



현대오일뱅크 초저유황선박유(VLSFO) 설비.

수요 증가 기대감 지속과 IEA의 석유 생산 증대 필요성 주장 등으로 상승했다”라며 “석유 시장 분석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가로 석유 수요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유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정제마진은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제마진은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가격과 수송 등의 비용을 뺀 가격이다. 정유사마다 상이하나 통상 배럴당 4~5달러를 BEP(손익분기점)로 본다.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지난 4월 다섯째 주 3.2달러를 기록하고, 이후 전주 대비 0.1달러 증가한 5월 넷째 주만 제외하고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5월 셋째 주부터는 계속 1달러대를 기록했다. 주간 기준 정제마진은 ▲5월 3주 1.6달러 ▲5월 4주 1.7달러 ▲6월 1주 1.4달러 ▲6월 2주 1.3달러 등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전 정유사가 흑자로 전환했던 올해 1분기와 달리 2분기는 성적이 좋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

르면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과 에스오일은 올해 2분기 각각 영업이익 3,596억 원, 3,631억 원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직전 분기 영업이익의 5,025억 원, 6,292억 원 대비 28.4%, 42.3%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차 확대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도 향후 수요 정상화 상황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나섰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4일 이사

회에서 내년 중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018년 상장을 추진했지만,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주주의 당사 주식 처분 절차로 인해 상장 추진이 중단된 이후 처음 재개된 것이다.

아울러 국제유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면 장기적으로는 정유사들도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유사는 국제유가의 상승에도 글로벌 정유 시설의 가동률이 높아 정제마진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면 정유사는 기존 저렴하게 구매해왔던 원유를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재고자산 평가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대신증권 한상원 연구원은 “정제마진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다. 다만 수요 개선에 따른 업황 회복의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연초 미국의 한파에 따른 대규모 가동 차질 사태 덕분에 고위 재고 소진 등 반등의 여건도 마련됐다”라며 “향후 가장 주목할 제품은 항공유다. 코로나에 따른 피해가 가장 컸던 제품으로 여전히 회복의 여력 역시 크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 초대형-초소형 양극화

8월 갤럭시 신형 폴더블 공개 전망  
Z폴드3, 7.5인치·S펜 지원 유력

바형 스마트폰, 작고 가볍게 변화

차세대 갤럭시가 온다. 폴더블에 높은 성능,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형 스마트폰과 태블릿 수요까지 집어삼킬 조짐이다. 바형 스마트폰은 반대로 더 작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8월 갤럭시 Z 폴드3와 플립2를 공개할 예정이다.

매년 8월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공개하던 때다. 올해에는 갤럭시 노트 대신 폴더블폰 신작으로 대체하는 것. 일단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를 단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차기작 출시를 늦추는 것뿐, 여전히 개발 중이라는 것.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노트 시리즈가 더이상 시장성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이에 있는 ‘패블릿’으로 실질적인 플래그십 역할을 했지만, 일반 스마트폰도 그만큼 커진데다가 S펜 지원 모델도 늘어나면서 독창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트 대신 출시될 Z폴드3는 접으면 6.2인치, 펼치면 7.5인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는 첨단 기술인 언더디스플레이 카메라(UDC)에 S펜까지 지원할 계획, 갤럭시 노트 시리즈 장점을 모두 흡수하는 셈이 된다.

가격도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폴더블폰 가격이 높은 탓에 보급이 쉽지 않았지만, 신작부터는 가격을 최소화해 본격적으로 노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추측이다.



레츠고디지털이 예상한 갤럭시 Z폴드3

/레츠고디지털



삼성디스플레이가 공개한 S폴더블.

/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에 쫓긴 태블릿은 더 커지고 있다. 갤럭시 탭 S7과 S7 플러스가 각각 11인치, 12.4인치로 노트북에 가까워졌다. 태블릿과 노트북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갤럭시 북 프로 360은 15인치에 달한다. 아울러 트위터안 등은 삼성전자가 내년 2번 접는 형태의 10인치 크기 태블릿까지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대로 S 시리즈는 더 작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위터안 등에 따르면 내년 출시될 갤럭시 S22는 6인치에서 6.8인치로 전작보다 0.1인치 안팎으로 축소된다.

바형 스마트폰 시장도 작은 모델에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6.1인치의 아이폰12였다. 그 다음으로 판매된 샤오미 레드미 9A와 레드미9도 대형 모델인 레드미 노트9보다 순위가 높았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형 스마트폰 수요가 폴더블로 넘어가면서,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 수요만이 남을 수 있어서다.

다만 매출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대형 제품이 앞서있다. 애플도 아이폰12 프로맥스와 12, 프로 순, 갤럭시 S21도 울트라와 일반 모델, 플러스 순이었다. 대형 바형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얘기다.

내년 노트 시리즈 출시 기대감도 여기에서 나온다. 갤럭시 S21이 S펜을 지원해도 부진했던 이유가 노트 시리즈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일각에서는 이같은 이유를 들며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를 내년에 다시 출시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 정부, ‘CCU 기술혁신 로드맵’ 수립

2050 탄소중립 실현 중점기술 선정  
CO2 포집비용 톤당 \$30 수준 절감

정부는 2030년 CO2 포집비용 톤당 \$30 수준으로 절감하고, 14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상용제품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형 CCU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15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자리에는 ‘바이오헬스 규제 과학 발전전략’도 토론안건으로 논의됐다.

세계 각국은 최근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함께 탄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배출된 CO2를 흡수해 처리하기 위한 CCU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관련 기술·산업·정책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기술 개발, 산업 적용, 정책·제도, 온실가스 감축 기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 로드맵은 2040년까지 기존 시장 가격 수준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탄소중립 실현 및 CCU 신시장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기술경쟁력, 시장경쟁력,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평가해 CO2 포집, 화학전환, 생물전환, 광물탄산화, 기타 탄소 등 5대 분야별 59개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2030년 산업계 적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용화 기술 및 차세대 기술

로 구분, 시기별 마일스톤 제시 등 개발 전략을 도출했다.

상용화 기술군은 핵심기술이 확립돼 있고, 2030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며, 조기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보급·확산을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기술군은 2050년 탄소중립에 핵심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기술로,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60~70/tCO2 수준인 포집비용을 2050년까지 \$20/tCO2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두번째로 CCU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실증·사업화 투자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연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위한 ‘(가칭)CCU3050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기획해 2023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 현재 실험실 단위에서 소규모로 추진 중인 포집·전환 공정 실증을 중대 규모로 격상해 현장 적용을 촉진하고, R&D 세액공제 확대, 정부 R&D 매칭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된 CCU 기술이 현장에 적용돼 CO2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CCUS 총괄협의체’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보급, 제도 개선, 국제 협력 등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참여부처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 “국제적으로 CCU 기술이 CO2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되는 만큼 ‘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 신여의도 오피스텔, 투자만 하십시오

## 월세는 시행·시공사에서 책임보장! 5년간 80만원

### 실투자금 6천만 원대 투자로 월세 80만원 / 1억2천만 원대 투자로 월세 160만원

실투자금 = 분양가격에서 대출(70%), 임대보증금,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 전세대 보증금
- 취득세 중과 제외
- 청약통장 무관
- 중도금 무이자
- 주택수 미포함
- 세대 창고

※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가 표준액 1억미만, 주택수 미포함 리브하임 오피스텔

### 임대수익 보장제 실시!

(최대 5년, 상세내용은 모델하우스에 문의)

### 임대수익보장제란?

입주시 임차인을 못 구했을 경우 **보장임대료 지급!**  
보장임대료보다 더 낮게 계약시 **차액을 지급**

### WHY?

투자자의 안전한 **투자보장** | **공실우려 해소**

- 교통**
  - 5호선 영등포시장역 5분, 15호선 신길역 · 9호선 국회의사당역-약 800m
  - 인천 송도→여의도→남양주 마석,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GTX) B노선(2027년 개통 예정)
  - 신안산선 2024년 개통 예정(안산-시흥-여의도)
  -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노들길, 강변북로, 2021년 제물포터널 개통(신월IC-여의도)
- 입지**
  - 파크원, IFC몰, 타임스퀘어, 현대 · 신세계 · 롯데 백화점 등 풍요로운 쇼핑
  - 영등포구청, 영등포경찰서,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63빌딩, CGV, 롯데시네마, 영등포 전통시장 등 생활 편의 시설
- 환경**
  - 신월동→영등포→여의도 지상 공원화 - 국회대로 지상 테마공원 조성
  - 한강시민공원,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셋강생태공원, 산책 · 조깅 등 쾌적한 웰빙 주거
- 넘치는 수요**
  - 금융, 증권, 방송국 등 여의도 금융특구의 가치 등
  - 여의도 내 공공기관 221개, 금융기관 194개
  - 영등포구 내 사업체 수 4만 3천여 개, 종사자 36만 8천여 명
  - 문래동 제2 세종문화회관 (2025. 12 개관 예정)
- 수익성** **임대수익보장제란?** (최대 5년)
- 안전성** - 입주시 임차인을 못 구했을 경우 보장임대료 지급!
- 환급성** - 보장임대료보다 더 낮게 계약시 차액을 지급!  
- 공실우려없이 안전한 투자를 보장합니다.  
- **갭투자, 고정적 월세 수익, 확실한 시세차익을 원하시는 분**

●입금계좌:수협은행 / 1010-2034-8996 ●예금주:무궁화신탁 ●청약금:100만원

여의도 리브하임 오피스텔(복층) 총 154실 전용 19.02㎡ 140실 | 19.48㎡ 14실

시행사 (주)스마트지에이치 시공사 GHI 건화종합건설(주) 신탁사 무궁화신탁 MUGUNGHWA TRUST CO., LTD.

## 모델하우스 1588-0231

사전방문예약/상담문의

# ‘ESG 경영’ 힘 주는 LG에너지솔루션… 전담 위원회 설립

김종현 사장·사외이사 4명 구성  
위원장에 신미남 사외이사 선임  
ESG경영 계획하고 성과 등 분석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오창공장.

LG에너지솔루션이 ESG 위원회를 신설하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본격화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 ◆ESG 위원회 설립 통해 지속가능경영 강화

ESG 위원회는 ESG 경영 관련 최고 심의 기구로 환경, 안전, 사회적 책임, 고객가치, 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ESG 분야의 기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목표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신미남, 여미숙, 안덕근, 한승수 이사)과 사내이사인 CEO 김종현 사장 등 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신미남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ESG 위원회는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성과 등을 분석하고, ESG와

관련해 중대한 리스크 발생 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된다.

## ◆내부거래위원회 신설해 경영 투명성 강화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이사회에서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결의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

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 ▲상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기타 법령상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등을 심의한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여미숙, 안덕근, 한승수 이사)과 사내이사인 CFO 이창실 전무 등 총 4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여미숙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이밖에 이사회는 내부 통제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한승수, 신미남, 여미숙, 안덕근 이사)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한승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는 사외이사 2인(안덕근, 신미남 이사)과 기타비상무이사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안덕근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전 ESG 영역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외이사 4명 신규 선임…절반은 여성 사외이사로 이사회 다양성 확대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미남 전(前) 케이옥션 대표, 여미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승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신미남 전케이옥션대표는 부산퓨얼셀 BU 사장 및 맥킨지 컨설턴트를 역임한 신재생 에너지 업계 전문가로 에너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과 산업 트렌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미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법률 전문가로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심도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통상 분야 전문가로 글로벌 경영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승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로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사외이사 4명 중 절반인 2명(신미남, 여미숙 이사)을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이사회 다양성을 강화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전문성을 지닌 여성 전문가들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해 이사회 다양성 및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신세계인터, 택배포장에 비닐 99% 없앤다

모든 포장재·부자재 친환경 종이 충격 완충재도 종이 소재로 변경  
100% 재활용 가능… 친환경 박차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제품 배송에 사용되던 비닐 포장재와 부자재를 100% 재활용 가능한 종이 소재로 전환한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제품 배송에 사용되는 포장재와 부자재를 종이로 전환한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15일 “택배 포장에 비닐을 과격적으로 감축하면서 친환경 경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포장과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닐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자,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재활용이 어려운 비닐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포장 자재 혁신에 나섰다.

배송에 사용되는 포장 박스를 비롯해 모든 포장재와 부자재는 산립관리 친환경

경 인증 소재로 생산한 종이를 사용한다. 상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넣는 충격 완충재, 비닐 에어캡과 소포장에 사용하는 비닐 파우치를 전부 종이 소재로 변경한다. 기존 비닐 박스 테이프 또한 종이 테이프로 바꾼다. 모든 종이 소

재는 100% 재활용이 가능해 별도의 처리 없이 종이류로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다.

다만, 비와 눈 등에 젖을 우려가 있는 의류 상품에 한해 소포장 폴리백(비닐 포장백)을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향후 폴리백은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재생 소재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16일부터 공식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를 통해 발송되는 모든 자사 브랜드 제품에 도입되며, 안전 포장봉투의 경우 기존 재고 소진 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단, 신세계인터내셔널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입점 업체에서 직접 발송하는 제품은 제외된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이번 종이 포장재 전환을 통해 연간 약 50t 이상의 비닐 폐기물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경총, 상장협·코스닥협과 기업 ESG 지원

정책 수립 지원 등 협업체계 구축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과 함께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준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경총은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기업 ESG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금 등 자산운용사와 글로벌 투자자의 ESG 검증 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장기업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경제단체 간 정책 대응과 기업 지원에 필요한 포괄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3개 단체는 기업주도 ESG 자율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정책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ESG 평가기준 마련과 관련해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기업의 자발적 실사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공동과제를 발굴해 수행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이번 협약은 일부 기업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이슈 제기와 그에 따른 경영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ESG 자율경영 동력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단체 간 ESG 관련 업무협약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앞서 경총은 국내 4대그룹을 포함해 총 96개 계열사의 18개 그룹 사장이 대표가 돼 구성된 ‘ESG 경영위원회’를 지난 4월 말 출범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책임투자원칙이 정착되면서, 연금 등 자산운용사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ESG 검증 요구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ESG 경영 공시와 함께 인권과 환경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책임경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ESG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평가기준과 확장성 높은 과도한 요구로 기업들이 겪게 될 혼선을 최소화하고 자율경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3개 단체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중견기업 10곳 중 8곳 “ESG 경영 필요성 공감”

중견련, 회원사 대상 설문  
업무·비용 부담 등 ‘걸림돌’

중견기업 10곳 중 8곳은 ESG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ESG경영 도입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등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실시해 1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8.2%는 ESG경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들은 ▲고객사 및 소비자 요구 대응(42.6%) ▲ESG 규제 대응(34.7%) 등을 ESG 경영 추진 동기 1·2

순위로 꼽았다. 또 ▲기업 이미지 제고(12.9%) ▲투자자 요구 등 자금 조달(4.9%)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16.8%는 자사의 ESG 경영 준비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43.6%, ‘낮다’는 39.6%였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들은 ‘업무 및 비용 증가(47.5%)’를 ESG 경영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

모호한 ESG 개념 및 범위(19.8%), ‘기관별 상이한 평가 방식(17.8%), ‘ESG 관련 규제 강화(12.9%)’ 등도 주요 걸림돌이었다.

ESG 경영 확산을 위해선 가장 많은 37.6%의 응답자가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혼란과 기업 부담을 해소하려면 공신력 있는 ESG 평가·공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32.7%로 높았다.

▲ESG 경영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20.8%) ▲ESG 경영 관련 정보 전달 체계 구축(8.9%) 등 원활한 ESG 경영 도입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견련 반원의 상근부회장은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ESG 경영 확산을 위해서는 규제 패키지 대상이 아닌 기업 체질 강화의 필수 요건으로서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뒷받침할 정책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보령제약, ESG 교육 콘텐츠 자체 개발

보령제약이 ESG 경영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보령제약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사고를 배양하기 위해 ESG 교육 콘텐츠를 자체 개발해 전 임직원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과정은 ‘ESG 확산과 환경경영 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과제, 사례, 전략’ 등 ESG 경영에 관한 다양한 내용

이 수록됐다.

보령제약은 이번 콘텐츠 제작을 위해 환경경영 전문가인 포스코경영연구원 안윤기 상무를 감사로 초빙했다.

현재 보령제약 전 임직원은 사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사이버 아카데미’를 통해 지난 1일부터 해당 필수 교육을 수강하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는 일반 인도 수강할 수 있도록 국내 온라인 교육 위탁기관 12곳을 통해 보급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경제·문화 협정 체결

## 文 대통령, 오스트리아 국민방문

투자확대 위한 '이중과세방지 협약'  
文 "기업들 활동 투명성 높이고  
양국 간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

현지시간 15일 스페인 국민방문  
만찬·총리와 정상회담 등 예정

유럽 순방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이하 현지시간) 오스트리아에 국민 방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문화 협력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스트리아 일정을 마무리하고 스페인에 국민 방문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국민 방문 일정에서 문 대통령은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 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은 투자 확대 및 경제 협력 증진 도모 차원에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개정의정서'를 체결했다. 해당 의정서는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오스트리아를 국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4일(현지시간) 비엔나 신브룬궁 1층 '그로세 갈레리에'(Große Galerie)에서 열린 오스트리아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 주최 오찬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

법적 체계 강화 ▲조세조약 남용 방지 규정 등 이중과세방지 관련 OECD 및 G20 차원의 국제 규범 반영 등이 핵심이다.

양국은 '문화협력협정', '청소년 교류 이행 약정', '교육 협력 의향서' 등도 체결해 문화·예술·청소년 등 양국민들이 참여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수교 130주년인 만큼 양국은 다양한 교류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오늘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하는 만큼 내년 수교 130주년을 맞아 우

호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및 교류 관련 협정 체결에 대해 "워킹홀리데이를 통한 청소년 교류가 보다 더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정 체결로) 특히 청년, 스포츠, 문화 교류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 체결에 대해 쿠르츠 총리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양국 간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문화협력협정과 청소년 교류 이행 약정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관광, 미래세대 교류 등 포괄적 협력을 더욱 넓혀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에서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수소 산업 관련 양국의 협력도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는 수소 연구에 강점을 갖고, 한국은 수소차를 최초로 상용화하고 수출과 보급에서 1위를 보이는 등 수소 활용에 강점을 갖기에, 양국이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은 글로벌 현안인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및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비엔나 시청을 방문하고 볼프강 소보트카 하원의장도 면담했다. 소보트카 하원의장과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이 신뢰와 연대, 상생과 포용의 힘으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일정을

마친 뒤 스페인에 국민 방문한다. 스페인에서 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 주최 국민 만찬에 참석하고, 산체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의회 및 경제인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은 2020년 수교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2019년 10월 펠리페 6세 국왕의 국민 방한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성사됐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14년 만에 이뤄진 국민 방문이자 스페인으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초의 국민 방문 접수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스페인인 해외 건설 수주 금액 2위의 건설 강국"이라며 "우리나라와 해외 건설 공동 진출을 확대하고, 친환경 미래 산업, 관광 산업, 보건 분야 협력을 증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 및 국제무대에서의 보건 협력 증진, 무역 투자 확대를 위한 세관 분야 협력 강화, 코로나19 이후 대비 차원에서 건설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 분야 협력 확대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50개 내수기업 글로벌 진출 본격지원

산업부-코트라, 비즈니스클럽 출범  
2024년까지 총 300개 기업 지원  
올 바우처 발급사업 예산 250억

정부가 수출 경험이 부족한 내수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코트라)는 15일 서울 서초동 인베스트코리아아카데미(IKA)에서 내수 중소·중견 50개 기업과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계획'의 일환이다.

올해 첫 선정된 50개 기업을 시작으로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구성

하고 2024년까지 총 30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내에 올해 30억원 규모의 '내수중견 전용트랙'을 신설했고,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중심으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 현지 시장조사 등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발급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250억원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수출 비중이 10% 미만이거나 수출 규모가 1000만달러 미만인 내수 중심기업,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 중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다. 수출 잠재력과 역량을 진단해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전략과 컨설팅 방향을 정해 유형별로 지원

한다.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아이템에 맞는 해외사장과 바이어를 발굴하고 맞춤형 해외 마케팅과 정책 금융 등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가 공유됐고, 내수기업의 해외진출 개척 포부 발표, 내수 중견기업 수출도약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등이 진행됐다. 사례발표에서 바이오·제약 분야 A사는 2014년 월드클래스 300 선정 등에 따라 2016년 1769억원이던 매출이 2020년 2159억원으로 성장했다. 의류·양말 분야 B사는 2019~2021년 프리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에 선정돼 미국 시장에 진출해 2019년 월 20만달러의 매출이 신규로 발생했고 2021년 매출은 월 60만~70만달러로 커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RPA로 친환경인증 농식품 허위광고 단속

농산물품질관리원, 내달 단속 강화  
하루 1000개 온라인 제품 모니터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7월1일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친환경인증 농식품으로 허위 표시 및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RPA는 데이터 수집과 입력, 비교 검증 등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컴퓨터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농관원 공무원이 친환경인증 광고 제품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제품별 인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날로 증가하는 온라인 판매 친환경 인증 제품에 대한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수작업 모니터링은 하루 50여건 내외 가능하지만, 프로그램은 한 번의 클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으로 하루 1000여 개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 이를 활용한 의심업체 현장 점검에서 실제 적발이 이뤄지는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RPA 시범조사에선 생산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로고와 인증명칭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걸 적발하기도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해군, 韓·美 연합 구조전 훈련 실시

해상재난 구조능력 강화 일환

해군은 지난9일부터 경남 진해만 일대에서 한·미 해군이 선박침몰 등 해상재난 구조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 구조전 훈련(SALVEX)'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미 연합 구조전 훈련은 매년 양국이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인도적 훈련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재개됐다. 조난된 인명과 손상된 선체를 구조하고, 항만 및 수로상의 장애물을 제거

해 선박의 항해를 돕는 것이 훈련의 핵심이다.

양국 해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훈련참가자 전원이 PRC 검사 및 자가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적용했다. 참가자들은 해군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 16명, 미해군 기동잠수구조부대(MDSU) 17명으로 편성됐다.

15일까지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한·미 구조부대원들은 전술토의를 시작으로 항로상 수중 장애물을 제거하는 육상·수중

폭파 훈련, 무인잠수정(ROV)을 이용한 모의 침몰 선박 수중탐색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강도 높게 진행했다.

훈련 마지막 날에는 진해 군항 앞바다에서 양국 잠수사들이 표면공급공기잠수(SSDS)로 수중에서 함정의 손상 부위를 신속히 파악해 긴급 복구하는 '손상함정 피해평가 및 긴급 복구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해군은 올해 첫 독도방어 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도 실시했다. 비공개 훈련이던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군과 해경의 함정과 항공기가 동원되는 등 예년 수준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철 기자 captinm@

## 올 딸기 수출액 4900만 달러... 25% 급증

농식품부, 베트남 점유율 93%

코로나19로 인한 악재 속에서도 딸기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하반기엔 해외 프리미엄 시장 공략으로 수출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 스타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딸기 수출액이 1~5월 누계 49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딸기 주요 수출국인 홍콩·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에서 상위권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선 한국 딸기 수출 점유율이 92.6%로 중국(7.4%)을 크게 따돌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딸기 수출 목표를 전년보다 20% 증가한 6500만달러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딸기 생산을 통한 고급화 전략으로 주요 수출국의 고급매장과 백화점 등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우량원묘 보급과 증식기술 컨설팅을 실시했고 5월엔 기형과율을 낮추기 위한 실증재배를 완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성비위 처벌 교사, 최장 10년간 담임업무 배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  
현행 교원 460명 담임 배제 전망  
담임 기피 만연... 혜택 지적도



성추행 등 성비위로 처벌을 받은 교사는 앞으로 최장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학교 현장에서 담임 배제가 불명예스러운 처벌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성 비위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학급을 담당하는 담임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와 징계처분 수위에 따른 배제 기간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로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의 경우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파면·해임의 경우에도 임용고시를 다시 치르고 교단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배제 기간을 최장 기간으

로 정했다. 또 강등 처분을 받은 교원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견책은 5년의 담임 배제 기간이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한 상황이어서 담임 배제가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정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담임을 맡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보면 처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풍조가 있어 오히려 혜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교육부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뒤 학교에 남아있는 교원 460여명이 담임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를 포함해 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법률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사유로 ‘피해 학생이 가

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방학, 개교기념일 등 휴업일, 방과후 등),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 제4항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분리조치 실시 여부에 대한 교육현장의 혼란이 해소되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고 85㎡ 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이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적용받는다. 또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승인권자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곽진영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왼쪽)과 박인숙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장 / 건국대 행정대학원

## 건국대-서울시간호사회 의료 행정 전문화 맞손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서울특별시간호사회와 의료행정, 사회복지 관련 전문 인력양성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료계, 간호계 등 의료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정보교류, 학술 교류를 통한 의료 행정 전문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곽진영 행정대학원장, 이종민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건국대는 올해 후기부터 행정대학원에 ‘의료행정학과’를 신설하고 첫 신입생을 모집한 바 있다. 곽진영 행정대학원장은 “신설된 의료행정학과는 보다 체계적인 의료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의료 거버넌스의 전문화를 이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간호계 인재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숙 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이 지원해 의료행정학과에서 전문적,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전문 의료행정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원광디지털대,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 석권  
원광디지털대학교 김춘심·임영주·최유정·김지현·이경미 학생은 전국 최대 규모의 행사인 2021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 전시경연 부문에 참가해 ▲복숭아 만쥬 ▲꽃젤리코 ▲더덕양갱 ▲더덕정과 등 건강에 좋은 다양한 70여종의 약차, 꽃차, 아트차와 50여종의 다과를 전시한 작품으로 대상(농림축산부 장관상)을 받았다.  
/원광디지털대학교

## 중앙대, 과기부 기초연구실 사업 선정

연구비 27억 4000만원 수주

중앙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집단연구지원사업(기초연구실)에 선정돼 총 27억4000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하게 됐다.

중앙대는 과기정통부가 소규모 연구그룹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1년도 기초연구실 신규과제’에 식품공학부 박종필 교수 연구팀과 기계공학부 이상민 교수 연구팀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두 연구팀은 이번 신규과제 선정으로 2024년 2월까지 각각 13억7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박종필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부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은 공동연구팀은 ‘난치성 대장질환 표적 진단 및 나노바이오제닉 정밀제어 연구실’이라는 주제로 사업에 선정됐다. 김선기 식품공

학부 교수와 박경순 시스템생명공학부 교수가 연구팀에 함께하며, 최창형 대구한의대 화장품공학부 교수도 힘을 모은다.

박종필 교수팀은 크론병 등의 염증성 대장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난치성 대장질환 정밀제어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상민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은 공동연구팀은 ‘제로파워 신체강화 기초연구실’이라는 주제로 사업에 선정됐다. 기계공학부 소속 김승환 교수, 남우철 교수, 이기욱 교수가 연구에 참여한다.

이상민 교수팀은 신체 활동 중 손상되는 에너지를 전달·저장하는 휴먼에너지 리커버리 기술을 개발해 자가 발전형 신체 증강·보호 시스템을 제작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ki1@

## 카이스트, 동물 과식 억제 신경망 시스템 발견

# “식이장애·비만극복 도움 기대”

후긴 신경세포들 DH44 세포 활성화  
국제 신경과학 학술지 ‘뉴런’ 게재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섭식 행동을 억제하는 신경전달체계가 작동해 먹기를 중단한다. 이런 과식 억제 신호에 대한 구체적 이해는 인간의 식이장애나 비만 발생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외 연구진이 과식 방지를 위한 새로운 억제 신경망에 대한 연구결과가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KAIST는 생명과학과 서성배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이 뉴욕대학교 오양균 박사(제1저자)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한 초파리에 특이적으로 발견되는 두 개의 독립적인 과식 억제 시스템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신경과학 전문 최고 권위 학술지 ‘뉴런’의 5월19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서 교수가 2015년 뉴욕대 재직 당시 초파리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다우레틱 호르몬(DH44) 펩타이드를 특이적으로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체내 당분의 농도를 감지함으로써 영양이 있는 음식을 선택하도록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발견한 연구의 후속 연구다.

이전까지 포유동물의 뇌 속에서 영양분을 감지해 자신의 활성을 조절하는 신경세포들은 보고된 적이 있으나, 이들 영양분 감지 신경세포의 생물학적 기능은 이 연구를 통해 처음 보고됐다.



연구팀은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탄수화물 섭취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과도한 물리적 팽창으로부터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짐을 밝혔다. 또 초파리 척수에 해당하는 복부 신경중추에 있는 ‘후긴(Hugin)’ 신경세포는 체내에 순환되고 있는 영양분의 농도가 높을 때 이를 감지해 후긴 수용체를 발현하고 있는 DH44 세포들의 신경 활성을 억제하고, 이런 작용을 통해 이미 체내 에너지가 높은 상태일 때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추가적 섭식 행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위 실험들을 통해 연구팀은 후긴 신경세포들이 각기 다른 물리적, 화학적 신호를 인지해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DH44 세포 활성화를 통해 야기될 수 있는 과식을 억제함을 확인했다.

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동물의 뇌 속에 존재하는 영양분 감지 신경세포의 섭식 유도기능이 상위 신호전달 체계에 의해서 특이적으로 억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며 “과식에 대한 억제는 독립적으로 인지되는 물리, 화학적 척도를 다각적으로 종합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만큼 동물 생존에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이며, 인간의 식이장애와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연구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 한국외대 유럽커리어워크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유럽커리어워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유럽에서 수학 및 근무하



는 동문들의 특강을 통해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외대 학생들에게 진로진출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다.

이번 유럽커리어워크는 4일간 텔레이 형식으로 4인의 동문이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영국, 프랑스, 체코 등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문들은 본인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유럽 현지에서 커리어를 쌓는 방법과 현지직자로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제시한다. 특강 후반부에 진행되는 질의응답 시간은 학생들이 궁금한 질문을 자유롭게 물어보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유럽커리어워크는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인 ZOOM을 통해 진행된다. 한국외대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 언택트시대 / 무인카페

고품질 친환경  
PREMIUM COFFEE

아메리카노 그란데SIZE  
₩1,300 or 1,500



-서울 등촌점 강서구 등촌동 654-5 101호 -서울 목4동점 양천구 목동 948 목동2차월드메르디앙 제201동 103호 -서울 목동점 양천구 목동 796-4 -서울 장안점 동대문구 장한로 26길 32  
-서울 원효로점 용산구 원효로 51 삼성테마트상가 -서울 신대방점 동작구 신대방동 705, 101동상가 -서울 궁동점 구로구 부일로 15길 40 -서울 상암점 마포구 상암동 23-6  
-서울 증미점 강서구 등촌동 637-10 -인천 인천터미널점 관교동 13-10 삼환아파트상가 104호 -인천 동촌점 연수구 원인재로 56, 연수현대1차상가 -인천 인하로점 미추홀구 용현동 94-3  
-인천 관교점 미추홀구 관교동 515-8 -인천 학익점 미추홀구 학익동 437-32 -인천 운서점 중구 신도시남로 142번길 3 -시흥 월곶점 월곶동 1010-4 풍림1차아이원상가  
-고양 신원점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22, 용민프라자 -고양 삼송점 고양시 삼송동 302-4 -부천 중동점 원미구 중동 1134-2 골드존타워 -부천 카톨릭대점 부천시 지봉로 42, B동  
-부천 송내남부점 부천시 송내동 315-3 상가동 B207호 -부천 상동점 부천시 상동 538-7 다승프라자 -부천 소사점 부천시 소사본동 424, kcc스위첸상가 -부천 중동역점 부천시 상동 329-13  
-부천 부흥점 부천시 상일로 85번길 8-25 -부천 소사본동점 부천시 소사본동 95-6 -부천 소사3호점 부천시 소사본동 403 상가2층 -부천 중동 남부점 부천시 송내동 372 푸르지오상가  
-천안 본사직영점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1160번지

24시간 무인 SELF CAFE 창업문의 1544-2807

# 산사태 예측·대비 가능해졌다... 농어촌공, 수치모델 개발

농어촌연구-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토석류 거동에 대한 물리적 특성 규명 급경사지 안전관리 광범위 활용 기대

산사태 발생시 토석류 피해범위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수치 모델이 개발됐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에 따르면 농어촌연구원과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가 공동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산사태 예측을 위한 토석류 거동에 대한 물리적 특성을 규명하고 개발한 수치모델을 검증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토석류는 집중호우 등에 의해 산사태가 일어나 흙과 돌, 바위, 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밀한 예측에 대한 필요성이 증



산사태발생시 토석류 피해 예측 실험을 위해 제작된 급경사수로

대되고 있다.

실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17ha의 피해가 발생해 복구비로 총 4128억원(연평균 459억원)이 사용되었으며, 2011년에는 우면산 산사태로 18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해외에서 수행된 기초연구결과를 이용한 응용연구가 대부분이어서 국내 여건에 맞는 토석류 특성과 관련된 연구 등 기술력 축적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사는 신뢰성 있는 토석류 실험의 원자료(Raw Data)를 확보하고 피해범위 예측을 위한 정밀한 수치모델을 개

발한 이번 연구가 앞으로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부시네스크(Boussinesq)방정식 수치 모형은 유속의 분산성, 수직방향의 불균일성, 비선형성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 가변경사 실험수로를 이용한 수리모형실험을 통해서 검증됐다.

특히,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 수리모형실험 시설의 급경사수로와 첨단 계측장비를 활용한 사면을 흘러내리는 토석류의 지점별 표고 변화, 퇴적형상, 작용력, 전과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개발된 비선형 수치모형의 실제 적용성 검증을 위해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수치를 모의한 결과, 산사태 발생시 토석의 체적이 200배 이상 증가했으며 폭우로 인한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면서 바다의 저항력이 약해져서 경사각 30°

고도 100m~250m 인 곳에서 바닥의 침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 발생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토적의 공간분포를 위성사진과 실험내용을 비교했을 때, 바닥의 침식이 발생한 곳이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사는 이번 연구 성과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실험시설 공유시스템인 그리드시스템에 2021년 하반기에 업로드 해 관련 분야의 모든 연구자 및 기술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피해예측을 위한 국내 원천기술 확보로 안전한 국토 공간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도전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연구과제 발굴에 더욱 노력해 국가 거점 수리시험센터 보유 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 여수시, 4개 섬 잇는 ‘여수섬섬길’ 코스 조성

행정부 공모사업 국비 2억 확보  
적금도 등 지나는 34.7km 거리

여수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자전거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50개소 중 5개 지자체를 뽑는 사업에 여수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여수와 고흥 사

이 4개의 섬을 연결하는 다리와 화양면 장수리 공정마을에서 화정면 조발, 둔병, 낭도, 적금도를 둘러볼 수 있는 34.7km에 이르는 자전거도로가 조성되고, 자전거대여소, 보관대, 휴게시설 등도 설치된다.

여수시는 금년 내 관련기관 협의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푸른 바다와 섬들이 그림처럼 펼쳐진 ‘여수섬섬길 자전거코스’가 조성되면 환상의 바닷길을 공영자전거로 안전하

게 달릴 수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섬섬길 자전거도로 개설이 제28차 UN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 중심도시로서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의 상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김용학 기자 jijacecom@



장성 황룡강을 대표하는 꽃 해바라기가 개화 시기를 맞아 눈부신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 장성군, 탄성 자아내는 해바라기 정원

100만 송이에 이르는 해바라기

장성 황룡강을 대표하는 꽃 해바라기가 개화 시기를 맞아 눈부신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장성군이 조성한 해바라기 정원은 황룡강 상류지점인 황미르랜드 은행나무길에서 시작해 장안교 근방까지 이어진다. 100만 송이에 이르는 해바라기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강 반대쪽을 바라보고 일제히 피었다. 수려한 강 풍경과 어우러져 절로 탄성을 자아낸다.

황룡강과 해바라기가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16년부터다. 장성

군은 잡풀만 가득 자라난 채 방치되어 있던 황룡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펼쳤다. 치수(治水) 기능을 개선하고 장성군민과 함께 꽃을 심었다. 이후, 지역민과 합심해 준비한 가을 노란꽃잔치가 큰 성공을 거둬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2018~2020년)되기도 했다.

꽃양귀비, 수레국화, 안개초 등 황룡강을 수놓은 아름다운 꽃들이 즐비하지만 방문객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꽃은 해바라기다. 특히 2019년에는 한 편의 ‘감동 드라마’를 써내려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전남=김태수 기자

## 함평군

### 올 1기분 자동차세 14억 부과

함평군은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1만 3741건 13억 71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발송 및 전자 고지 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이달 1일 기준 함평군에 등록 신고된 자동차 등 기계 장비 소유자다.

다만 지난 1월과 3월 연납 신청해 납부한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는 이번엔 1년분 자동차세 전액이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 영양군, ‘인구정책 지원사업’ 홍보 앞장

귀농·귀촌 등 신규 전입자 대상

영양군은 ‘영양에서 누리는 행복하 삶’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귀농·귀촌 등 신규 전입자를 위한 인구정책 지원사업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영양군이 추진하는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14개 분야의 혜택들을 한눈에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군민은 물론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파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영양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입축하금은 1인당 10만원씩 세대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 55명이 지원혜택을 받았다. 청년 직

장인 주택임차료 지원사업은 매월 10만원씩 최대 3년간 지급하여 전입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귀농인 정착지원, 귀농농가 지원사업,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귀농정책과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역정책 지원사업 등 청년층 눈높이에 맞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영양군은 민원실, 유관기관, 다중집합장소 등에 비치해 군민은 물론 전입을 고려하는 예비 영양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도 전입자와 귀농·귀촌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광양시, 섬진강 재해 복구 ‘구슬땀’

항구적 재해복구사업 마무리

광양시가 지난해 8월 섬진강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엄청난 침수 피해를 입은 진월면, 다압면 특별재난지역의 하천시설물에 대한 항구적인 재해 복구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8월 7~8일 진월면, 다압면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진월면 진월제와 다압면 신원제에 제방 붕괴 전조 현상인 파이핑(Piping) 현상이 발생하고, 다압면 섬진마을 앞의 보강토 제방이 무너지는 등 섬진강내 6개소에서 하천시설물 파손 등으로 약 57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시는 신속하고 면밀한 현장조사를 추진하는 등 중앙합동조사반 현장 점검에 만전을 다한 결과, 지난 8월 24일 전액 국비로 재해복구사업비 약 69억 원을 확보하고 진월면, 다압면을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국비 확보에만 만족하지 않고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섬진강 관리청이자 피해복구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광양시 구간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광양시가 직접 시행하도록 지속해서 건의했다.

건의가 수용되어 섬진마을 보강토 붕괴 구간 등 4개소는 시에서 국비 22억 원으로 직접 시행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28일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가하천 재해복구 대행공사 협약을 체결했고, 11월에 개소별로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소규모 사업인 다압 하천, 평촌 지구, 태인 지구 3개소는 올해 2월 착공해 지난 6월 11일 다압 평촌지구를 준공했으며, 나머지 2개소도 6월 말까지 복구를 마칠 예정이다.

대규모 사업인 섬진마을 보강토 붕괴 구간은 올해 5월 착공해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전남=김용학 기자



# “쿠팡·마켓컬리 딱 기다려”... 식품업계, 직영몰 키워 ‘추격’

### 비대면 식품구매 역대 최대호황 직영몰 리뉴얼, 새벽배송 확대 유료 회원제 등 서비스 차별화 충성 고객·경쟁력 확보 기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식품 구매 비중이 커지자 최근 식품업계가 직영몰 서비스 차별화에 나섰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시장에도 비대면(언택트) 소비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온라인 식품시장은 역대 최대 호황을 누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식품시장 거래액은 43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4% 증가했다. 온라인 식품시장 거래액이 2019년 26조 7000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4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쿠팡과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 유통채널이 새벽 배송, 큐레이션, 신선배송 등 거대한 유통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규모를 키우는 상황에서 식품업계의 직영몰 강



동원그룹 '더반찬&'이 새벽배송 주문 마감시간 연장하고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강화한다.

화는 불가피한 선택이 됐다. 직영몰 투자는 온라인에서 신성장동력을 모색하는 동시에 유통단계와 플랫폼 입점 수수료를 줄여 수익을 늘리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독자적인 마케팅으로 이미지 개선과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충성고객 확보 및 데이터수집도 용이하다.

실제로 식품업계의 직영몰 서비스 강화 효과는 상당하다. CJ제일제당이 운영하는 식품전문몰 'CJ더마켓'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60% 늘었다. 대상이 운영하는 '정원e샵'의 경우 유료멤버십 '정원클래식(CLASSIC)' 회원의 재구매율이 25%에서 30%로 증가했다. 동원그룹의 자사몰 매출도 20% 성장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식품업계는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원그룹의 온라인 장보기 마켓 '더반찬&'은 신선식품 새벽 배송 주문 마감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9시로 확대 연장했다. 더반찬&은 2008년부터 10년 이상 신선식품을 제조하며 쌓아온 고객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요일별, 제품별로 주문 수요를 예측해 제품을 조리함으로써 새벽 배송을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동원그룹은 동원 F&B가 운영하던 '동원몰'을 비롯해 계열사들이 개별 운영하던 온라인 사업 조직을 통합

한 신설 법인 '동원더푸드'를 설립했다.

더반찬& 관계자는 “소비자 구매 성향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가해 통합 온라인 장보기 마켓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푸드는 온라인 직영몰 '롯데푸드몰'을 리뉴얼 오픈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리뉴얼은 최신 트렌드의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적용해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였다. 간편 결제 및 로그인, 정기 배송, 맞춤 큐레이션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추가했다. 또한 파스타 브랜드, 아이생각 브랜드 등 개별 브랜드관을 추가해 브랜드별 인기 제품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하는 미혼모 여성과 보육시설 아동들을 위한 기부 이벤트도 진행한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의 중요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에 앞으로도 직영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직영몰을 통해 지속해서 친환경, 취약계층 지원 캠페인을 진행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CJ더마켓' 유료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며 단골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료회원 '더프라이' 제도를 개편해 '월 8회 한정 5% 추가 할인' 대신 '상시 7% 무제한 추가 할인'을 도입하는 등 혜택을 키웠다. CJ더마켓에 신제품을 2주 먼저 출시하는가 하면, 지난 3월에 신제품 체험단도 유료회원 전용으로 전환했다.

업계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대기업 대형마트 마저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르렀다. 쿠팡 및 마켓컬리와 같이 선두적으로 비대면 소비에 맞춤형 온라인 유통채널로부터 소비자를 뺏아내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식품업계는 차별화한 서비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롯데백, 50여개 명품 브랜드 60억치 펀다

### 해외패션 편집샵 '롯데탑스'서 18일~27일까지 대규모 명품 할인 핸드백 등 잡화 최대 40% 세일

롯데백화점이 전국 '롯데탑스(TOP S)' 10개점에서 대규모 명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50여 명품 브랜드의 인기 상품을 약 60억원 규모로 준비해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을 못 가는 대신 명품을 구매하려는 보복 소비 심리로 롯데백화점의 올해 4~5월 해외 명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3% 신장했다. 특히 20~30대 고객의 매출 구성비가 50%를 차지하는 등 MZ세대의 플렉스(FLEX) 문화가 최근 명품 시장의 성

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롯데백화점의 해외패션 편집샵 '롯데탑스'가 올해 두번째 해외 명품 할인 행사를 18일부터 27일까지 선보인다. 행사 진행 점포는 롯데백화점 일산점, 미아점, 구리점, 분당점, 대전점, 전주점, 동래점 7개점과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 김해점, 아울렛 남양점 3개점이다. 롯데탑스는 지난 3월 진행한 할인 행사보다 물량을 10억원 늘려 60억원 규모로 준비하고, 행사매장도 지난 1회 행사를 전개하지 않은 새로운 10개 점포를 선정해 더 많은 고객들이 합리적인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사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행사 주요 품목은 핸드백, 클러치, 지

갑 등 잡화 상품으로 지난 행사에서 고객들의 큰 관심을 끈 인기 해외명품 브랜드의 스테디셀러 아이템과 최대 40%까지 할인되는 시즌아웃 특가 상품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롯데탑스는 '해외 유명 브랜드 직소싱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안하는 편집샵'을 모토로 해 가치소비를 위한 토탈 코디네이션 스토어로 확장하고 있다. 기존 탑스 매장을 기반으로 국내 최초 토탈 스니커즈 스토어 '스니커바'와 남성 프리미엄 잡화 편집샵 '스마트'를 오픈했으며, 올해 5월에는 프리미엄 홈데코 편집샵 '탑스 메종'을 인천터미널점에 론칭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모델들이 15일 홈플러스 부천상동점에서 '슈퍼 클리어 워크' 기획전 행사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 홈플러스, 여름 의류·잡화 최대 80% 할인

### 30일까지 '슈퍼 클리어 워크'

홈플러스가 중소패션 브랜드의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여름 의류·잡화·이너웨어를 저렴하게 선보이는 기획전 '슈퍼 클리어 워크'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전국 점포에서 약 29억원 상당의 시즌오프 상품 4만 4500여종을 최대 80% 할인해 선보인다.

우선 아동복/남성복/여성복 862종을 3900원/5900원/7900원/9900원 균일가에 선보인다. 대상 품목은 홈플러스 패션 PB 브랜드 'F2F' 디즈니 캐릭터 상

품, 성인 여성 반팔 티셔츠·민소매, 성인 남성 반팔 티셔츠 등이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대비해 인기 잡화류도 저렴하게 판다. '플립플랩' 바캉스 슈즈, '베네통·네펜' 아쿠아슈즈, 캐릭터 슬리퍼 등을 9900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양말·스타킹, 이너웨어, 우산 품목은 '1+' 행사로 구성된 고객 혜택의 폭을 넓혔다. 이외에도 '유명 브랜드 대전'을 통해 '스미글 학생용 가방'·'레스포엑 가방'·'팁버랜드 샌들'은 1만 9900원에, '안다르 운동복'은 9900원에 판다. /신원선 기자

## 웅진식품 제로 칼로리 '이온더핏 제로'

웅진식품이 제로 칼로리 이온음료 '이온더핏(사진)'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온더핏은 몸에 이온과 수분을 채워주는 웅진식품의 이온음료 브랜드다. 신제품 '이온더핏 제로'는 기존 로우 칼로리 제품에 이온과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온더핏 제로는 500mL의 단일 용량으로 출시됐으며, 쿠팡 등 각종 온라인 채널에서 구입 가능하다. 한편, 웅진식품은 이온더핏 제로 출시를 기념해 홈페이지에서 스크랩 이벤트를 진행한다. /조효정 기자

## “점심때 먹을 도시락, 아침에 주문해도 OK”

롯데푸드, 식단관리 도시락 7종 당일배송 프레스코드에 입점 9시30분 전 주문시 점심에 도착 롯데푸드가 'Chefood(쉐푸드) 세븐데이즈 플랜' 식단 관리 도시락 7종을 건강식 당일배송 스타트업 프레스코드에 입점했다고 15일 밝혔다. 쉐푸드 세븐데이즈 플랜은 롯데푸드의 식단 관리 제품 라인업이다. 밥과 반찬을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제품이지만 칼로리는 일반 밥 한 공기과 비슷하다. 210g 밥 한 공기과 약 304kcal(식약처 식품영양성분 DB기준)인 것에 비해, 쉐푸드 세븐데이즈 플랜은 285~345kcal로 구성했다. 롯데푸드는 스타트업 프레스코드 입점을 통해 쉐푸드 세븐데이즈 플랜의 접근성을 높였다. 프레스코드의 대표 서비스인 '프코스팟' 배송을 이용하면

오전(9시 30분 이전) 주문 시 무료로 당일 점심에 지정한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프레스코드는 현재 서울, 판교 지역 1200여개의 프코스팟을 운영 중이다. 프레스코드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운 프코스팟 위치를 확인하거나 신규 개설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퀵 배송, 새벽 배송 등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입점은 롯데푸드의 제품력과 프레스코드의 혁신적인 유통 서비스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롯데그룹 스타트업 육성의 성과이기도 하다. 프레스코드는 카페, 편의점 등 오프라인을 거점으로 활용한 당일배송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 받아 롯데벤처스로부터 지난 2018년 투자를 받았다. /조효정 기자



## 노브랜드 버거 '슈가버터 프라이' 출시

노브랜드 버거가 사이드 메뉴로 '슈가버터 프라이(사진)'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세계푸드는 색다른 조합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기존 소금을 뿌린 짭짤한 맛의 감자튀김 대신 단짠맛과 짬짬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단짠 조합의 '슈가버터 프라이'를 새롭게 선보였다. 노브랜드 버거의 '슈가버터 프라이'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감자튀김보다 2배 이상 두툼한 감자를 튀겼다. 달콤한 버터시럽과 진한 그라나파다노 치즈 토핑을 얹어 달콤하고 짭짤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노브랜드 버거 '슈가버터 프라이'의 가격은 2500원이며, 세트 주문 시 1000원을 추가하면 기본 감자튀김에서 '슈가버터 프라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조효정 기자



# 건물 곳곳 8자소품 눈길... 테마별 퓨전메뉴 찾는 손님 복적

## 크로포

### 오뚜기 '롤리폴리 꼬뜨'

소품·색상 등 자연스레 기업 연상 브랜드 이미지 줄이고 체험 극대화 다양한 시도로 소비자 트렌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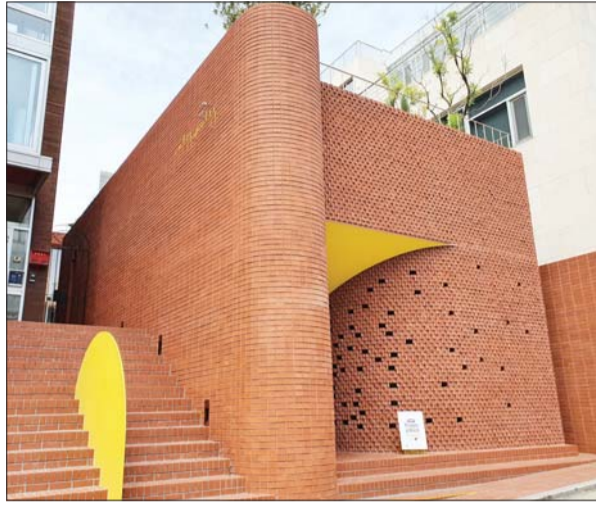
미술관도, 건축사사무소도 아니다. 붉은 벽돌이 견고하게 쌓여 도무지 용도를 가늠할 수 없는 세련된 건물 곳곳에 힌트가 숨어 있다.

시선을 사로잡는 노란색 천장, 근데 근데 보이는 눈사람(8자) 모양 소품을 보다보면 자연스럽게 한 단어가 떠오른다. 바로 '오뚜기'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롤리폴리 꼬뜨'를 방문했다. 이곳은 오뚜키(Rolypoly)란 영어 단어와 요리 또는 식당이란 뜻을 갖는 꼬뜨(Cotto)를 합친 뜻으로, 식품전문 기업 오뚜기가 내놓은 브랜드관이자 레스토랑이다. 이곳은 건물 내외부에 오



프레스코 소스 리뉴얼에 맞춰 내놓은 딱새우로제 파스타.



오뚜기 브랜드관 '롤리폴리 꼬뜨' 전경.



오픈형 키친 위 오뚜키 모양 조형물이 상징성을 더한다.



건물 곳곳에 8자 모형 소품이 비치되어있다. /권소완 수습기자

뚜기란 회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이나 간판을 달지 않았다. 그저 노란색과 8자 모양의 소품을 통해 고객들이 오뚜기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키도록 한다.

출입문 손잡이도 오뚜키 모양인데다 메뉴 가격도 백원 단위가 800원(오뚜키 모양)으로 끝난다. 천장엔 상들리에 대신 노란색 오뚜키 모양 장식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이곳에서는 오뚜기 제품을 재료로 활용해 테마별로 다양한 메뉴를 출시하고 있다. 오픈 초기에는 순두부 열라면, 카레 쇠고기 등 자사 주력상품을 이용한 퓨전메뉴를 구성했다.

지난주부터 '파스타 워크'로 콘셉트를 변경하고 오뚜키 프레스코 스파게티 소스를 이용한 파스타, 리조또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오뚜기가 프레스코 스파게티 소스를 리뉴얼하고 로제소스 등

2종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브랜드관인 롤리폴리 꼬뜨에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노골적인 홍보를 배제한 나머지 기존 기업 이미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 이곳에 최근 MZ 세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14일 오전에는 12시가 되기 전부터 3팀 이상이 대기하고 있었다. 매장을 찾은 고객들은 오뚜기에서 운영하는 브랜드관이라는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점심시간을 맞아 방문했다는 직장인 한모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하길래 와봤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세련된 식당인줄 알았는데 같이 온 친구가 오뚜기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 김모씨는 "분명 오뚜기에서 만들었는데 입구에서부터 오뚜기를 찾아볼 수 없다

는 점이 재밌다"라며 웃었다.

실제 입구 바로 옆 상품 매대에서도 오뚜기 대표상품인 진라면, 3분카레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식품기업과 디소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불펜, 마스크 테이프 등 문구류, 담요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뚜기 관계자는 "롤리폴리 꼬뜨는 소비자들의 메뉴 선호도, 소비 패턴, 트렌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라고 말했다. 최근 체험형 마케팅이 급부상하면서 오뚜기 상품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관련 메뉴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이벤트성 공간이 아닌 지속적인 공간으로 고객들의 브랜드 체험을 강화하며 콘셉트에 따라 새로운 메뉴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업계가 체험형 마케팅 공간을

잇따라 내놓는 이유로는 가치와 체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소비패턴이 원인으로 꼽힌다. 온라인 위주였던 기존 브랜드 마케팅을 벗어나 차별화수 있는 방안으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등이 주목 받으면서다. 실제 M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에서 '팝업스토어'를 검색하면 25만 2천 여개의 관련 게시물이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MZ세대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소비하지만 오프라인을 통해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거나 경험하기 위해서 기꺼이 줄을 선다"며 "기업의 목표는 이미지 제고와 매출증대지만 내놓고 이러한 상업성을 드러내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권소완 수습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KT&G, '릴 솔리드 2.0', 유라시아 4개국 진출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협업 각국 상황에 따라 3~4종 판매

KT&G가 2분기 유라시아 권역 4개국에 권련형 전자담배 '릴 솔리드 2.0' 및 전용스틱 '핏(Fiit)'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릴 솔리드 2.0'은 KT&G의 권련형 전자담배 2세대 모델로 업그레이드된 배터리 효율과 인덕션 히팅 기술 등이 특징이다. 국내에는 올해 1월 전국 출시됐다.

아르메니아, 세르비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권역 4개국 내 릴 솔리드 2.0과 핏 출시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과 글로벌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KT&G 전자담배 '릴 솔리드 2.0'과 전용스틱 핏(Fiit) 3종

KT&G와 PMI는 이달 14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에 '릴 솔리드 2.0'과 '핏' 판매를 개시했다. 양사는 6월 3일과 7일 각각 세르비아와 키르기스스탄에 동일 제품을 선보이며 유럽 동남부와 중앙아시아까지 시장을 넓혔다. 5월

13일에는 카자흐스탄에 릴 솔리드 2.0과 핏을 출시했다.

유라시아 4개국 현지에서 출시된 디바이스는 '스톤 그레이'와 '코스믹 블루' 두 가지 색상이다. 전용스틱은 '핏 레귤러' '핏 레귤러 스카이' '핏 크리스프' 등 총 7가지 종류이며, 각 국가의 시장 상황에 따라 나라별로 3~4종 판매 중이다.

KT&G와 PMI는 지난해 권련형 전자담배 '릴'의 해외 판매를 위한 제품 공급 계약을 맺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릴 솔리드 1.0'을, 일본에는 '릴 하이브리드 2.0'을 출시한 바 있다. 지난해 3개국에 이어 올해 2분기 릴 솔리드 2.0을 신규 4개국에 판매함으로써 릴은 총 7개국에 진출하게 됐다. /조효정 기자

## 아모레퍼시픽 이너뷰티 차 '미라클 타임' 출시

복령, 치자 등 12개 원료 고농축 배합

아모레퍼시픽의 럭셔리 홈 에스테틱 브랜드 '홀리추얼(HOLITUAL)'이 이너뷰티 차 '미라클 타임'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라클 타임은 '림프의 기적' 저자이자 에스테틱 업계 전문가인 '슬림엔' 박정현 원장과 공동 개발했다. 박정현 원장이 28년간 쌓은 실전 경험과 철학을 녹여 그가 운영하는 스파에서 관리 전후 제공하는 차를 액상 타입으로 제품

화한 것이다.

복령, 치자, 계피, 오미자, 황기 등 12가지 동양 고유의 원료를 고농축해 황금 비율로 배합했으며, 아모레퍼시픽 헬스케어 연구소와 해협(HACCP) 인증 에스트라 공장의 체계적인 생산 절차를 거쳤다.

홀리추얼 미라클 타임은 매일 약 100~150ml의 따뜻한 물에 한 포를 타서 자기 전 공복에 마시면 좋다. 요즘 같이 더운 날씨에는 얼음을 넣어 물이나 커피 대신 즐기는 것도 제격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JW홀딩스 "복잡한 건기식 한번에 간단 섭취"

마이코드 모먼트팩 3종 출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하루 한번,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출시됐다.

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생활건강은 '마이코드 모먼트 팩' 3종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섰다. '마이코드 모먼트 팩'은 3종 라인업에 따라 각각 영양의 고른 균형, 활력충전, 여성 갱년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소비자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라인



JW생활건강 직원이 15일 '마이코드 모먼트 팩' 시리즈 3종을 소개하고 있다. /JW생활건강

업을 선택하여 하루 1팩을 1번 섭취하면 된다. 서로 다른 기능성을 담은 제품을 조제약 형태로 단위 포장하여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신세계면세점 "심삿갓이 숨겨둔 조선시대 보물 찾으세요"

엔택트 방탈출 게임 콘셉트 이벤트

신세계면세점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엔택트 방탈출 게임 콘셉트의 '심삿갓의 보물지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심삿갓의 보물지도' 이벤트는 신세계면세점의 SNS 마케팅을 담당하는 가상 캐릭터 '심삿갓'이 조선시대에 숨겨

두었던 보물을 찾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신세계면세점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후 '심삿갓의 보물지도' 이벤트 게시물 이미지 곳곳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 최종 보물 계정 3개를 팔로우하면 된다. 그리고 참여 인증 댓글을 달면 자동 응모된다. 오프라인에서 즐기던 방탈출 게임을 온라인에서 엔택트로 진행

하는 방식이다.

모든 임무를 완수한 이들 중 추첨을 통해 행운의 주인공, 총 3명에게 금한돈씩을 증정한다. 또한, 보물을 찾는 과정에 만나볼 수 있는 깜짝 이벤트를 통해 '다시 만난 세계'의 굿즈인 장우산, 버버리 향수 세트, 스타벅스 음료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들이 준비돼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직장인이라면, 군인이라면, 고민없이 장학금 받고 경희사이버대학교

**모집일정** · 1차 : 2021.06.01(화) ~ 2021.07.13(화)  
· 2차 : 2021.07.23(금) ~ 2021.08.17(화)

## 왜 경희사이버대학교?

### 국방부와의 협약에 의한 군인들을 위한 특혜

· 전형료, 입학금 전액 면제 및 매학기 등록금 반값!!

### 경희사이버대와 협약을 맺은 회사원들을 위한 혜택

· 전형료, 입학금 전액 면제, 매학기 등록금 반값!!



## 모집학과(부)·전공

<b>IT·디자인융합학부</b>	<b>보건의료관리학과</b>	<b>상담심리학과</b>	<b>문화예술경영학과</b>	<b>금융부동산학부</b>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b>한방건강관리학과</b>	<b>일본학과</b>	<b>미디어영상홍보학과</b>	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
<b>미래인간과학스쿨</b>	<b>후마니타스학과</b>	<b>중국학과</b>	<b>사회복지학부</b>	<b>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b>
재난방재과학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b>NGO사회혁신학과</b>	<b>미국문화영어학과</b>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청소년·가족전공	<b>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b>
	<b>미디어문예창작학과</b>	<b>한국어문화학과</b>		관광레저경영전공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b>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b>	<b>한국어학과</b>	<b>글로벌경영학과</b>	<b>외식조리경영학과</b>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b>스포츠경영학과</b>	<b>세무회계학과</b>	
		<b>실용음악학과</b>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hcu.ac.kr/ipsi](http://www.khcu.ac.kr/ipsi) 상담전화 02-959-0000



**농협은행 정보보호부, 민통선 마을 농촌 일손돕기**  
NH농협은행은 지난 14일 정보보호부 직원들이 연천군 왕징면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마을을 방문해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일손돕기는 10명의 정보보호부 직원들이 함께 고추 재배 농가에서 결가지치기 작업과 영농 폐자재 및 폐비닐 수거 등의 환경미화 활동을 실시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NH농협은행



**동아ST, 취약층 골다공증 환자 치료제 지원 나서**  
동아에스티는 지난 14일 서울 동자동 대한골다공증학회 사무실에서 취약계층 골다공증 환자 치료제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식 동아에스티 회장, 원영준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장, 김경주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 이사장, 노희식 한마음사회복지재단 이사장(오른쪽부터)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문성유 캠프 사장, 락 플라스틱 고고챌린지 동참**  
캠프는 문성유 사장이 생활 속 락(脫) 플라스틱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고고챌린지(Go! Go! Challenge)'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 문 사장은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주자로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 C) 사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추천했다. /캠프



**유안타증권, 언택트 자선 걷기대회 기부금 전달**  
유안타증권이 지난 14일 을지로 본사에서 '2021 언택트(Un-tact) 자선 걷기대회'를 통해 조성한 사회 공헌기금 1000만 원을 '아름다운재단'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아란 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국 국장(왼쪽부터), 권한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귀명정 유안타증권 대표이사, 신남석 유안타증권 리테일사업부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안타증권

**제주항공 카톡 선물하기 국내선 티켓 출시**

제주항공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할인 구매해 선물할 수 있도록 '국내선 비즈니스라이트(BIZ LITE) 기프트티켓'을 출시하고 오는 30일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제주항공은 이달 18일부터 국내선에서 비즈니스 좌석을 운영할 계획에 맞춰, 카카오톡에서 선물용으로 사용 가능한 국내선 비즈니스라이트 기프트티켓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故 정상영 KCC명예회장 '글로벌 인재' 육성 본격화**

**민족사관고 지원기금 약정식 장학생 선발 등 추가 지원도**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유지인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이 본격화됐다.

15일 KCC에 따르면 정상영 명예회장 유가족 측과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최근 강원도 횡성군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 유가족·민족사관고등학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기금 약정식'을 가졌다.

이번 약정식에서 유가족 측과 민사고는 국제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기존 사고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문과 과학이 결합된 융복합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같이해 이에 걸맞은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 정상영 명예회장의 유산으로 마련한 기금 100억원은 ▲역량 우수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분야별 영재 발굴 및 교육 프로그램



강원도 횡성군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기금 약정식에서 (왼쪽부터) 고 정상영 명예회장 유가족 측 관계자와 민족사관고등학교 최경중 행정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발 ▲교원 확충 및 연수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학생을 발굴하고,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 기금과 별도로 유가족과 KCC 그룹 차원에서의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민사고는 설립 이후 본래 취지에 따라 인재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도전해 학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 제도로 운영해 왔지만 재단의 어려운 경영 사정

으로 인해 현재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KCC 정몽진 회장은 민사고 설립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재 30억원을 별도로 출연해 민사고의 인재 육성에 부합하는 저소득층 우수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간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3년 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KCC 그룹은 사회 공헌 차원에서 학생들이 쾌적한 교

육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교실, 강당, 체육관 개보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 교육 환경을 위한 20억원 상당의 인프라 지원 공사도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며 실제 공사는 이번 여름 방학 기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사고의 과학 영재들이 꿈과 배움을 키울 수 있도록 KCC 중앙연구소와 연계해 석박사 연구원들과의 멘토링, 과학 실험 캠프 등 다양한 산학 연계 과학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KCC 관계자는 "고 정 명예회장 유가족들이 인재 육성을 위해 유산을 기부함으로써 최고의 인재를 길러 국가에 보답한다는 '인재보국'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인재 육성을 위해 사재 500여억원을 기꺼이 쾌척하는 등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온 고 정 명예회장의 오랜 염원이 민사고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미래 식품산업 혁신 스타트업 육성 CJ제일제당, '프론티어 랩스' 론칭**

**기업당 5000만~1억 초기 투자 3개월 간 멘토링 거쳐 추가 지원**

CJ제일제당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는 '프론티어 랩스(FRONTIER LABS)' 프로그램을 론칭했다고 15일 밝혔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업당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초기 투자한다. 이를 위해 CJ제일제당은 10억원을 출자했다. 이후 3개월간의 전문가 멘토링 과정을 거친 뒤 추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후속투자는 데모데이 이후 투자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과감하고 빠른 투자 결정으로 실행력을 높였다. 선발된 기업은 CJ제일제당과의 다양한 파트너십 기회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모집영역은 ▲테이스트&웰니스(영양&건강, 대체단백, 정통식품) ▲뉴노멀(개인맞춤형 기술, 푸드테크, 스마트쿠킹) ▲지속가능성(스마트팜, 푸드 업사이클링) 3개 분야로 CJ제일제당의 식품사업을 한 단계 높여줄 제품 기술 지속가능한 식문화 등 산업 전반의 미래사업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프론티어랩스 접수는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올해 3월 식품전략기획실 산하에 사내벤처캐피탈 역할의 뉴 프론티어랩스를 신설해 전략적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와 관계자들이 기브앤레이스 기금 기부식에 참가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벤츠, '기브앤레이스' 기금 5억 전달**

**취약계층 아동 치료비 지원**

메르세데스-벤츠가 기브앤레이스 버추얼런으로 받은 기금을 수혜 기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기브앤레이스는 7회에 걸쳐 진행된 기부 행사로,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지난 5월 22일부터 이틀간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금은 참가비와 추가 기부금, 출연 기금 등을 더해 5억원을 조성했다. 지난 7회 대회동안 누적으로는 36억원에 달한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화상 치료, 심장병 수술,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토마스 클라인 의장은 이날 전달식에 참석해 "세 번째로 진행된 기브앤레이스 버추얼런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깊이 감사하다"며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앞으로도 '기브 앤 시리즈'를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인사**

-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장 김동환 ◇과장급 전보 △검역정책과장 변상문
- ◆뉴저지버리움 △산업부장 김국현 △금융증권부장 차진형
- ◆연세대의료원 ◇팀장(부장) ◇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장 박만우 △경영분석팀장 권석철 ◇사무처 △재무회계팀장 김현영 △구매팀장 최충실 △신협파견(전우) 김종렬 ◇인재경영실 △인사운영팀장 주수용 △인사기획팀장 정혁상 △조직문화팀장 박호진 △대외협력처 △홍보팀장 이성만 △세브란스병원 △입원원무팀장 선

- 홍규 △법무팀장 서영근 △V팀장 김은현 △헬스체크업의원 검진팀장 도경민 ◇어린이병원 △경영지원팀장 신동홍 ◇파트장(차장) ◇기획조정실 △경영분석팀 분석파트장 한성욱 ◇중입자건립추진본부 △기획운영팀장(차장) 이정환 ◇사무처 △재무회계팀 재무파트장 장진중(8.1일부) △구매팀 자산관리파트장 최웅진 △건축팀 송도세브란스병원설계파트장 김영중 ◇인재경영실 △조직문화팀 노무파트장 김영광 △인재개발팀 교육운영파트장 김병욱 △인사운영팀 인사운영2파트장 최상기(8.1일부) △인사기획팀 인사기획파트장 주재영(8.1일부) ◇대외협력처 △홍보팀 홍보파트장 박진섭 ◇감사실 △감사파트

- 장 방성훈(8.1일부) ◇제중원보건개발원 △행정팀장(차장) 이대용 ◇의과대학 △사무팀 교육파트장 강진수 △사무팀 교학파트장 장규순 ◇세브란스병원 △외래원무팀 외래2파트장 김숙 △입원원무팀 입원1파트장 이종구 △입상연구관리실 사무팀장(차장) 박성진 ◇강남세브란스병원새병원추진본부 △강남)간담기획팀 운영파트장 이용래 ◇연세암병원 △원무팀 원무파트장 임강운 ◇치과대학병원 △경영지원팀 사무파트장 김영훈 △경영지원팀 경영전략파트장 양성오 △경영지원팀 원무파트장 이종호 ◇심장혈관병원 △경영지원팀 원무파트장 송준섭 ◇파견 △법인감사실 박태호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

원 김이연

**부음**

- ▲이순행씨 별세, 김현수(롯데렌탈 대표이사)씨 모친상=15일, 경북 군위협향장례식장 특실, 발인 17일 오전 8시, 장지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선영. 054-383-2990
- ▲김현주씨 별세, 최락현(나우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이안(동현회계법인 회계사)·시연씨 모친상, 이광윤(신한은행 홍보부차장)씨 장모상, 오현주씨 시모상=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장지 미정. 02-2290-9442

# 일본 신사 닳은 31억짜리 상징조형물



홍경안 역  
시사일괄

한국엔 보편적 대중 정서와 미적 가치가 반영된 소통 중심의 '공공미술'과는 거리가 먼 조형물이 넘쳐난다. 공공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전시행정으로 '혈세 낭비'라고 비판받는 조형물 또한 가득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중화장실 겸 조형물인 경북 군위군의 7억원짜리 '대추화장실'이다. 세금 15억원이 쓰인 강원도 고성군의 '항아리 조형물 겸 건축물' (일명 진격의 농부)도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꼽힌다.

이밖에도 밟도 못 짓는 괴산군의 5억원짜리 '대형 무쇠술'이나 3억원이 들어간 청양군의 '황금 복 거북', 5억2000만원을 들여 조성한 보령시의 '갈매기 형상 조형물'도 돈만 쓰고 효율성을 상실한 조형물로 언급된다. 하나같이 시민 공감은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의 조형물 사랑은 남다르다.

강화도도 그 중 하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지난 3월 시·도 경계인 인천 강화대교 입구에 강화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강화읍 갑곶리 산 6-3일원 48국도변에 세워지는 이 조형물은 길이 42미터, 높이 11.5미터의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 5월 기공식을 가졌다.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5년간 10%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8구, 2군을 통틀어 하위 2~3위를 다룬다. 이런 현실을 간과한 체 세금 31억원이 투입되는 조형물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실제 지역 내 일부 언론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지난 10일 '강화대교 관문 상징조형물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 없이 관문 조형물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단체장들이 임기 중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과 근거 없는 관광 진흥 낙관론이 대형 조형물 건립의 발단임을 지적하며 늦었지만 군민과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색(倭色) 짙은 조형물 디자인은 논란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강화군은 강화산성 동문을 모티브로 처마와 성벽을 재해석한 조형물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선 일본 신사(神社) 입구에 설치되는 '도리이'(鳥居)와 닮았다고 주장이 나온다. '도리이'는 신사 앞에 세우는 전통적인 문으로, 신이 머무르는 영역과 인간이 사는 영역을 구분 짓는 경계 역할을 한다.

지역 내 커뮤니티에선 '돈 낭비'라며 조형물 대신 차라리 주말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리 하나를 더 놓으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피라는 요청이다.

문제는 사용자 관점을 우선하는 정책, 주민의견을 보다 폭넓고 밀도 있게 경청하려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형 조형물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행정 중심적 사고와 낮은 미의식, 그릇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민 감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선 통제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심매경 예술감독

## “포털 알고리즘 개선, 법적 규제 능사 아냐”



기지수첩  
채윤정 (산업부)

포털의 뉴스·쇼핑 등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공정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포털의 뉴스 배치 등 알고리즘 혁신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최고 위원은 늦어도 7월까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김남국 의원 발의의 '신문법 개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포털의 AI 알고리즘이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는 항상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큰 화두가 됐다. 정치권이 이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이유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털을 길들이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포털 알고리즘의 공정성 논란이 생길 때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알고리즘은 AI 기반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공청회에 참가한 카카오 실장은 행사 내내 이 같은 답변 만을 되풀이했다. 결국,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포털 책임자에 "사람이 알고리즘 설계를 수작업으로 하지 않냐"고 추궁해 포털 참가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냈다.

이날 공청회에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개발자 편향성이 그대로 답질 수 있는 만큼,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어떻게 편향성 여부를 검증하는가 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

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여러 의원들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구속력이 없는 만큼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몇몇 발제자들은 업계 자율, 민간 차원에서 개선안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치권이 주도해 강제적 법적 규정을 만들기 보다 정부 관계자, 관련 위원회, 생산자인 포털,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소비자 등이 참여해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포털 알고리즘 공개 및 검증 방법이 결정된 후 이를 정부에 제출한다면 정부의 '언론 검열'이라는 문제가 또 다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공개해 검증받아야 하는지는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포털 알고리즘이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검증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AI 전문가 echo@

오늘의 운세 6월 16일 (음 5월 7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땅에서 수확한 농산물로 건강을 유지. 48년생 마음이 우울하나 자식이 기쁜 일을 알려준다. 60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72년생 맡은 일은 책임지고 완수할 줄도 알아야. 84년생 일확천금과 불로소득이 생각날 수.
- 소** 37년생 매너와 도덕을 지키니 내 마음이 편하다. 49년생 배우자의 과소비와 사치를 줄여보도록. 61년생 주변에서 주식 얘기가 끊어지지 않을 듯. 73년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85년생 걷기 운동은 필수일 듯.
- 호랑이** 38년생 반려견과 나갈 때는 다른 반려 견을 주의. 50년생 손님이 반가운 소식을 듣고 오니 하루가 즐겁다. 62년생 할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다룬다. 74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나 결실을 이룬다. 86년생 밤중에 비단옷 입고 활보하는 격.
- 토끼** 39년생 소풍을 가더라도 사전 준비를 하고나서. 51년생 집안에서 경제에서 세대교체. 63년생 소질과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게 인간사회. 75년생 휴일 없이 종일 바쁘다. 87년생 변화의 바람은 불어오는데 갈피를 못 잡는다.
- 염** 40년생 골치 아픈 인연에 엮이지 말 것. 52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64년생 경료와 인성 지식이 갖추어져야 할 듯. 76년생 천년을 가는 사랑을 느낀다. 88년생 자신의 특기를 자랑으로 생각하냐 별거 아니다.
- 뱀** 41년생 집 뒤의 야산으로 산책을 가보라. 53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 65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서 가야. 77년생 구름 속의 태양을 의심하지 말고 노력. 89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피서를 떠나 기분전환.
- 말** 42년생 시택관계에서 시누이와 다투어. 54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66년생 회사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구상하자. 78년생 남의 도움을 받으려 시도 있다. 90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하다.
- 양** 43년생 남자역시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 55년생 성공이 지척인 듯하나 마음만 바쁘다. 67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일을 시작해 보자. 79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이 생기니 한 단계 상승할 운. 91년생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보라.
- 원숭이** 44년생 조상 천도제를 올려보라. 56년생 운이 있으니 거래를 해도 좋다. 68년생 오늘 준비를 해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이다. 80년생 우물 속 개구리는 더 큰 하늘을 보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는다. 92년생 유능한 선배를 떠나지 않도록.
- 닭** 45년생 낭비벽이 심한 가정사로 애가 탄다. 57년생 작은 흠이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주의. 69년생 인제가 쉬고 있으니 조직에서 손실. 81년생 강을 무사히 건넜으면 배도 소중히 간직. 93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 개** 46년생 외출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힘써라. 58년생 다정도 지나치면 병이니 가족에게 잔소리를 삼가라. 70년생 조급함이 화를 부르니 느긋하게 행동. 82년생 주변 사람과의 의견 대립으로 마음이 불편. 94년생 월급으로 실비보험을 계약.
- 돼지** 47년생 직장생활에서 온 노후가 감사. 59년생 운이 상승하고 있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71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해내는 날. 83년생 낙숫물에 비위가 풀리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95년생 중매가 들어오니 선택을 해보라.



## 김상회의四季 가상화폐 투자 열풍

시대에 관계없이 재물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들어 채테크 투자하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에 가상화폐는 열풍이라고 말할 수도 부족할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다.

가격이 순식간에 뛰면서 투자금이 몰려들고 어떤 가상화폐는 하루에 5만%가 올랐는데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다. 투자자는 2030세대가 가장 많았는데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급격하게 된 집값이 큰 영향을 미쳤다. 투기 같은 투자만이 현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가상화폐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거래된다. 국경이 없고 쉬는 시간도 끝나는 시간도 없다. 휴일 없이 그리고 24시간 계속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루에 수십 번을 사고파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손실을 본다면 어떤 상황이 될지 아찔하다.

한 달 사이에 몇 배가 올랐다고 기뻐했다가 며칠 만에 그 이상으로 하락하는 일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젊은 사람이 몇 달 만에 큰 수익을 올려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기사도 나왔다. 기사에서만 보았던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몇 십 억을 벌었다는 사람도 필자에게 방문을 했다.

이런 상황이니 사람들이 확 달려드는 것도 어찌 보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각국 정부나 전문가들은 광풍이 곧 식을 것이라고 잇따라 경고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투기 수단이고 가치가 없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거래되는 가상화폐만 해도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 많은 걸 제대로 알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욕심 가리기가 필요하다. 가상화폐 투자는 자산이 급세 몇 배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순식간에 자산을 거의 잃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을 늘려라**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사투리이스도쿠** **생각을 늘려라**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 퍼즐  
사투리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4				2
	1			7	
		4	1		
3		6	8		5
		7	5	3	
1		2	4		6
		1	2		
	8			3	
1					6

			1		5	2
9	4		2			1
2						
			7			1
	2	9	1		7	
1			3			
						8
	8		4		9	2
1	3		2			

### 정답

8	9	2	4	8	9	1	6
4	1	8	9	9	6	8	2
2	9	6	2	8	1	8	4
9	8	8	4	6	2	4	9
2	6	1	8	9	4	7	8
9	4	7	8	1	9	6	2
8	9	1	2	4	2	6	9
6	4	2	9	2	9	1	8
1	2	9	6	8	8	9	4

9	9	4	2	6	8	8	1	2
2	6	1	2	4	8	9	8	9
8	8	2	9	1	9	2	6	4
9	9	2	8	8	4	6	2	1
8	2	8	1	9	6	4	2	9
1	4	6	9	2	2	9	8	8
4	8	8	6	9	2	1	9	2
2	1	9	8	2	9	8	4	6
6	2	9	4	8	1	2	9	8

고난이도의 월드컵 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7400206	2002년 5월 28일 제 471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7450111	2017년 3월 09일 제 0819호	

# “中企 경영활동 전념토록 세무조사 부담 완화하겠다”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신남방국가 세정지원 강화 등 건의  
“유예 대상 확대, 현장조사 축소”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 4번째부터) 김대지 청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국세청에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가업승계제도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김대지 국세청장을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전달했다.

김청장과의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운 대한전 문건설협회장, 김보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9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한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과감히 면제하고, 세무 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재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우주 식 사전증여를 통해 계획적 승계를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많다”면서 “하지만 증여세 분납기간이 5년으로 제한

되어 세금납부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계획적 가업승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주시 사전 증여 시 10년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간담회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세정지원방안을 별도로 발표했다.

김대지 청장은 “(중소기업의)세무 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을 더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조사부담을 낮추고 조사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종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면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전담팀을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장 회의, 현지 세무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홈택스 고도화를 통한 비대

면 디지털 세정 구현 ▲카카오톡·유튜브를 활용한 국세 상담 서비스 ▲스마트폰을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도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부동산 탈세,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의 신남방국가 진출이 많은 만큼 국세청이 세정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진출 형태에 따른 세무대책, 조세특례 등 제도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신남방국가 진출 기업이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공공기관, 中企 국방기술 사업화 ‘합심’

중기부-ADD-기보-창업지흥원 등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성장 지원



1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린 ‘국방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창업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3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관련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을 위해 국방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권철승 장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ADD),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의 국방기술 활용 혁신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DD와 중기부 유관 기관들이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방기술을 활용한 중

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과 창업 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인 Tech-Bridge에 ADD 보유 특허를 연계해 중소기업에 국방기술정보를 제공해 기술이전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거래중개 및 후속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ADD는 우수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국방 R&D 후속 지원 뿐만 아니라 자체 보유 기술을 활용한 창업지원에 앞장선다. 기정원은 ADD 군경력 활용 창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R&D 가점을 부여하고, ADD의 우수인력이 기정원 R&D 사업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호 기자

## 홈쇼핑, 중기 해외 판로확대 MOU 체결

대·중기농어업협력재단과 협약



홈쇼핑 김형락 중기성장지원실장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국신욱 기획조정본부장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쇼핑

홈쇼핑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다.

15일 홈쇼핑에 따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은 홈쇼핑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 중소기업 협력사의 해외 마케팅 활동과 판로개척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로 3년째인 관련사업은 매년 지원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을 출연해 해외 홈쇼핑 입점을 지원했다. 올해는 금액을 4억원으로 늘려 ▲스타트업 육성 ▲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 ▲중소기업 CEO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새롭게 기획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홈쇼핑을 통해 국내에서 상품력을 인정받은 라비오르 콜라겐 마스크팩, 무드매처 립스틱, 바른엔젤 헤어 등 15개 중소기업 상품이 대만의 모모홈쇼핑에 론칭해 10억원 이상의 수출을 기록했다. /김승호 기자

## CJ대한통운, 녹색소외지역에 도시숲 조성

지역사회 환경 개선

CJ대한통운이 녹지가 부족한 도심속 녹색소외지역에 자연 탄소흡수원인 도시숲을 조성하며 미세먼지와 탄소배출량 줄이기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시민들로부터 녹지가 부족한 녹색소외지역을 제안 받아 숲을 조성해주는 ‘그린맵 캠페인’을 진행한다.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에 녹색소외지역을 공유하는 ‘#그린맵숲챌린지’를 16일부터 8월까지 펼친다. CJ대한통운

은 시민들이 공유한 녹색소외지역 중 대상지를 선정, 9월 중도시숲을 조성해 지역사회 환경 개선은 물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그린맵챌린지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숲이 조성되길 희망하는 지역의 사진과 지도 이미지를 희망 이유,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또한, 챌린지 참여자 중 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완료한 선착순 100명에게는 집에서 손쉽게 씨앗을 받아, 재배할 수 있는 ‘씨앗 재배 키트’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

## 현대백 프리미엄 쇼핑위크

에이스침대가 브랜드 최초로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대규모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에이스침대는 백화점 이용객과 혼수를 준비하는 부부에게 브랜드 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자사의 핵심 제품을 모두 만날 수 있는 대규모 프로모션을 오는 20일까지 단독으로 진행한다. 15일 밝혔다.

현대백화점 본점 별관 4층에서 열리는 이번 프로모션에선 ‘로얄 에이스’ 전 제품 등 다양한 라인업을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 파주 야당동에 ‘시몬스 맨션’ 오픈

파주운정가구단지 초입 위치

시몬스가 경기 파주시 야당동에 ‘시몬스 맨션 파주운정점’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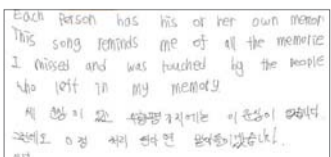
‘시몬스 맨션’은 시몬스 침대 본사가 임대료,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 진열제품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100% 지원하는 매장이다.

시몬스 맨션 파주운정점은 수도권 대표 가구단지인 파주운정가구단지 초입에 위치해 이사 및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등의 방문이 쉽다. 또 제2

자유로와 인접해 인근 지역인 고양시 탄현동, 덕이동, 운정동은 물론 김포 등 경기 서북부 지역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다. 여기에 매장 인근에는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GTX-A노선 운정역 개통도 예정되어 있어 향후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상 2층으로 구성된 시몬스 맨션 파주운정점은 시몬스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Beautyrest)’의 인기 모델인 ‘윌리엄(William)’과 ‘헨리(Henry)’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안동 여고생’ 유족 “부정행위 낙인이 죽음으로 내몰아” /사진 뉴스스
- ▲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정은경 “어패류 익혀먹어야”

- ▲ 이준석 압박 나선 與 “수술실 CCTV 설치 동참...청년다움 잃었나”
- ▲ G7서 한일회담 불발...日언론 “한국 불신에 애초 부정적”



- ▲ 김두관,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할 상황”... 출마 시사 /사진 뉴스스
- ▲ 백신 접종 이어지며 ‘타이레놀’ 품귀... “약국서 아세트아미노펜 찾으세요”

# 서울시민 24% 1차 백신접종 완료... 2차 완료자 6.1%

총 231만명 접종... 2차는 59만명  
백신물량 총 58.4만회분 남아  
이상반응 총 948건... 98% 경증

서울시는 시민의 약 24%가 코로나 19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1차 예방접종을 마친 시민은 230만9534명이다. 이는 관내 거주 인구수(960만명)의 24.1%에 해당하는 수치다. 2차 접종까지 끝낸 시민은 58만9320명(6.1%)으로 집계됐다. 14일 신규 접종 인원은 1차 14만5519명, 2차 5만2848명으로 총 19만8367명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백신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33만 9600회분, 화이자 15만2358회분, 안센 9만2520회분 등 총 58만4478회분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뉴스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4일 기준으로 신규는 600건이고, 누적은 7948건(접종자의 0.3%)이었다. 이상반응 신고 중 97.8%가

근육통, 두통, 발열 같은 경증 사례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최근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재개되고 학교 등교 확대와 스포츠 경기장 등의 방역수칙 완화로 각종 활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라고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유증상시 검사받기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는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12만5657건의 검사를 수행, 6건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PCR검사를 실시해 최종 확진된 사례는 3건이었다고 밝혔다.

박 방역통제관은 “3건 모두 콜센터 종사자였다”면서 “오는 18일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위양성, 위음성 사례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7월부터 적용하는 사

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6월 20일 공개하겠다고 이날 예고했다.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준비함에 따라 서울형 상생방역이 실제 운영되는 기간이 3주로 짧다는 지적에 박 방역통제관은 “중수본(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기간이 짧고 범위도 축소된 부분이 있지만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가에서 하는 새 거리두기 지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시는 지난 10일 강동-마포구의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이달 12일부터 한 달간 벌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성실 채무상환 소상공인에 보증료 지원

서울신보,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서 1억 기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했지만 전액 변제에는 이르지 못한 일명 ‘성실 실패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채도전지원특례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채도전지원특례보

증’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중 일부를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이때 보증료는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00명 이상에게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이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총 1억원을 기부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다시서기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보증료 부담 없는 채도전지원특례보증 지원과 더불어 채도전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일대일 밀착 사후관리를 해준다.

이와 관련해 양 기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성실실패자의 채도전 지원을 위한 ‘채도전지원특례보증’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 권역 확대

남·북·서부 이어 동부권서 운영

서울시는 노인학대 대응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시설로 현재 서울 남부·북부·서부 권에 각 1곳씩 총 3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올해 동부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만들고 4개 권역별 체계를 갖춰 보다 촘촘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시설이 동부권에도 생기면 기관당 담당 자치구가 종전 8~9개에서 5~7개로 줄어 체계적·효율적 학대예방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하반기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공개 모집한 뒤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



2021년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노인인권 사진전 자료 사진. /서울시

대를 막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간 협업 체계를 구축, 사례를 관리하기로 했다. 기관이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재학대 위험이 높은 가구를 선별하면 어르신 재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해당 가구의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 “특례시에 대학설립 권한 이양돼야”

고양시, 특례시 출범 앞두고 주장

내년 1월 특례시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가 특례시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양시(이재준 시장)는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에 대학 설립의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고양시에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관내 여러 유수의 대학이 있는 수원, 창원과 달리 고양시는 4개의 대학교(한국항공대·농협대·중부

대학교 고양캠퍼스·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칼캠퍼스)만 있다”면서 “고양시 내 부족한 대학 수요를 충족하고, 인적자원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학-지역사회 간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권한까지 함께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에 대학설립에 대한 권한이 이양될 경우, 무엇보다 109만 고양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졸업생 배출로 인해 고양시 지역의 평균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취업자 배출에 따른 경제적 가치도 유발된다.

고양시에서는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고양일산테크노밸리·CJ라이브시티·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등과 연계된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1분기 자동차세 2033억 서울시, 고지서 일제발송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1년 1분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1기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33억원이다. 1분기 자동차세는 2021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내면 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종이 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0 | 해질 / 19:55

6월 16일 (수)  
음력 : 5월 7일

수도권 날씨  
20~2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7/29, 동두천 17/29, 가평 17/27, 파주 18/28, 서울 20/29, 양평 19/29, 수원 20/29, 용인 20/29, 평택 19/28, 백령도 17/25, 인천 20/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뉴스비타민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미 1~5월 하루 총격 사망자 54명...다가오는 여름 우려  
▲“동성애 논의 금지”...헝가리, 성소수자 차별 법안 논란 /사진 뉴스1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CEO “미 5월 국내 여행, 95% 회복”  
▲CNN, NYT 등 미 언론사들, 트럼프의 언론인 내사에 항의



▲中 광둥성 코로나 확산...세계 물류대란 우려  
▲日방위상, 한국 독도 훈련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사진 뉴스1



[종합]  
코인정리 후폭풍  
코인 운영사  
강경대응 예고  
04



Life

[라이프]  
식품업계  
직영몰 차별화  
유통채널 추격  
니



# 백로는 물놀이하고 시민들은 활기 가득 불광천서 ‘푸룻푸룻’ 에너지 충전하고 가세요

## 되살아나는 서울

### 00 불광천

서울 은평구에는 지하철 3·6호선이 지나가는 연신내역이 있다. 역명은 과거 불광동에 있던 마을 이름에서 유래했다. 한국지명유래집과 서울지명사전에 따르면 조선시대 인조반정 때 거사에 함께하기로 한 장단부사 이서(李曙)가 약속장소인 이곳에 늦게 도착해 ‘지각한 이서’라고 놀리던 것에서 비롯된 말로, 신하를 늦게 만난 개천이라는 뜻에서 연신내(연신천·延臣川)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불광천의 옛 이름이 연신내다. 삼각산 비봉에서 발원한 불광천은 은평구 불광·대조·역촌·신사동을 지나 서대문구 북가좌동을 거쳐 마포구 성산동에 이르러 홍제천에 합류, 한강으로 들어가는 약 9km 길이의 하천이다. 청계천처럼 비가 와야 물이 흐르는 건천이었던 탓에 오·폐수가 유입되면 악취가 진동했으나 2002년 우수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지하수를 끌어오면서 사계절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바뀌었다.



이달 7일 오후 시민들이 불광천에서 산책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 ◆청동오리·가마우지·백로 날아들고 잉어 헤엄치는 불광천

지난 7일 오후 생태하천으로 변모한 서울 불광천을 방문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 지하철 6호선 새철역 2번 출구로 빠져나왔다. 살이 통통하게 찐 비둘기 떼가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했다. ‘비둘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생태계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당부의 말이 적힌 플래카드를 뒤로 하고 불광천 산책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길은 총 4개로 구분돼 있었다. 지하철역 쪽으로는 바닥이 붉은색으로 칠해진 자전거 전용로가, 하천 쪽으로는 초록색을 띤 보행자용 산책길이 양방향으로 나 있었다.

이날 불광천을 찾은 홍기수(74·이하 가명) 씨는 “은평구에 50년 넘게 살면서 이 길을 매일 같이 오갔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면서 “저기에 가마우지도 막 날아다닌다”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선사시대에 살았을 법한 익룡갈이 거대한 검은 새가 날개를 퍼덕이며 창공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홍 씨는 “옛날에 중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가마우지 목에 줄을 매달고 사냥개마냥 물고기를 잡아오게 하는 걸 본 적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거 말해주면 뺨 치지 말라고들 하는데 여기 와서 가마우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그제야 좀 믿어준다”며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가마우지가 떠난 자리에는 하얀 빛깔을 한 백로가 남아 부리로 털을 고르고 있었다. 가마우지나 백로 같은 새들이 왜 이리 많은지 궁금해 징검다리를 건너며 물속을 들여다봤다. 하천 안에서 수초 뒤에 몸을 숨긴 팔뚝만 한 잉어 여러 마리를 발견했다.

이달 7일 불광천에서 만난 백동희(38) 씨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잠깐 들렀다”면서 “청동오리랑 백로를 서울 한복판에서 보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즐거워했다.

백 씨는 “다리를 철봉 삼아 알 푸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귀엽

다”면서 “이따 아무도 안 볼 때 따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불광천에서는 활기 넘치는 50~80대를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셋노란 등산복을 입고 경보를 하는 어르신부터 신업머신에서 빠른 속도로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백발의 노인까지 운동에 열중한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 ◆환경 개선 필요

불광천을 따라 은평구 응암3동에서 서대문구 북가좌2동 방향으로 내려왔다. 산책로에서 반려견이 개천 풀숲으로 내려간 주인을 보며 ‘왕왕’ 짖어대기 시작했다. ‘저기는 위험해 보이니 얼른 나오라’는 소리로 들렸다. 남색 차양모자를 푹 눌러 쓴 70대 노인이 빨간색 꽃 한송이를 꺾어 손에 쥐고 나왔다. 일행 중 한 명이 “그게 이제 막 피가지고 사람들이 못 보고 지나갔다 보다”면서 “우리 아들 집 앞에 털양귀비 많은데 좀 갖다 줘?”라고 물었다. 개천 옆 풀 무더기에서 붉은 꽃을 들고 나온 이 할머니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며 흡족해했다.

꽃 한송이에서 행복을 발견한 어르신들을 지나쳐 증산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베레모를 쓴 노인사가 개천 다리 위에서 목욕재계하는 비둘기 한 무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새들은 물속으로 고개를 푹 담갔다가 하늘로 머리를 획 쳐들기를 반복하며 몸에 물을 뿌려댔다. 날이 더워 열을 식히는 것처럼 보였다.

서울 신사1동에 사는 윤학일(64) 씨는 “저 지저분한 비둘기들 좀 보라”면서 “우리 은평구 쪽은 좀 나는데 서대문구나 마포구로 내려갈수록 개천물이 점점 더러워진다. 특히 다리 밑에서 역한 냄새가 나서 스트레스가 많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윤 씨는 “뉘시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 여기 있는 잉어나 청동오리, 백로 다 더러운 물에서도 잘만 사는 애들인데 그거 좀 나왔다고 물이 깨끗해졌다고 어찌고저찌고 떠드는 거 정말 웃긴다”며 코웃음 쳤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불광천을 찾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며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달 7일 오후 불광천 풀숲에서 털양귀비를 발견한 한 어르신이 꽃 한송이를 꺾어 손에 쥐고 있다.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올림픽 축구대표팀, 22일 재소집... 30일 최종엔트리 확정 /사진 뉴시스  
▲ KBL ‘승부조작’ 강동희 전감독 재심의 기각...제명 유지

▲ ‘돌아온’ 최지만, 선구안은 여전...북귀전에서 볼넷 2개  
▲ 세계랭킹 1위 고진영, 명예회복 나선다...시즌 첫승 사냥



▲ KLPGA 4승 쓸어담은 박민지, 세계랭킹 27위→22위 도약 /사진 뉴시스  
▲ ‘메시 프리킥 골’ 아르헨티나, 칠레와 1-1 무승부